



1991-2025

 PT. BOSUNG IND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80년, 치열한 삶의 연대기 끝에 마주한 평온한 수평선.  
강릉 경포의 푸른 바다 앞에 서서 서로의 등을 맞댄 3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풍경이 됨. 거친 풍랑 속에서도 묵묵히 가문의 뿌리를 내려준 가장 박영섭 님의 팔손을 축하하며 띄우는 열두 개의 하트는 아버지의 고귀한 생애에 바치는 자손들의 가장 찬란한 화답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리를 지켜온 이 땅의 모든 가장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사진 제공: 박연주

### 07 [다카시 풍경 27]

꽃잠 | 사심

### 0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석유보조금의 딜레마

### 10 [한인회 이모저모] 재인도네시아 한인회-K-LAB,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12 [한인회 이모저모] 동성케미컬 경영진, 재인니

한인회 재방문,

“교민 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모색”

### 13 [한인회 이모저모] 우리소다라은행 한창식 신임

행장 취임 첫날 한인회 방문, “교민 금융

동반자 역할 강화”

### 14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주 전국체전 볼링 선수선발전JEU 2026

### 16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

제주4·3과 해녀, 자카르타서

세계와 만난다

### 17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제8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 18 PLN Nusantara Power ·

PT VOGO ARSTROMA,

# contents

2026. 5. 통권 359호

- 22 [신간소개] 순정출판사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새로운  
지침서>
- 24 월간 뉴스 브리핑
- 26 [조연숙의 인도네시아 천 개의 이야기]  
인사말이라는 이름의 작은 우주
- 28 [법창비화]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 이승민  
변호사
- 30 [박물관 이야기 켜] 코끼리 머리를 한  
신, 모든 문을 열어주다 | 양범은  
도슨트
- 32 전 세계 메타 오피스 도장깨기!  
자카르타를 접수한 한복 선비  
김사다함
- 36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의 특징과  
기업 대응 전략
- 37 [한인니문화연구원]  
제15회 인도네시아 문학상 공모
- 38 제5회 생태이야기 문학상 공모
- 39 제3회 나의 한국이야기 문학상 공모
- 40 [한인니문화연구원]  
『불멸의 테이블』 출판기념회  
두 문화, 한 식탁 위에 마주 앉다
- 43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서울 도봉구협의회,  
평화 통일 플랫폼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4 [서상영의 한방칼럼 37]  
약초꾼 이야기 4화 - 할머니(1)
- 46 [학생기자]  
예술가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  
강현준
- 48 [JIKS] 미래를 이끌 융합인재의 힘찬  
첫걸음,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개강식
- 50 [JIKS] "새로운 비전, 더 큰 도약의  
시작" JIKS,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성료
- 51 [JIKS] 자기주도학습 '순공120'  
프로젝트로 형설지공의 불을  
밝히다!
- 53 [JIKS] 초등 'English Day'로 글로벌  
소통의 문 활짝 열다!
- 54 [행복에세이]  
오월의 길목에서 | 김준규 시인
- 56 [신간소개] 김보배 시집  
<웃자란 후각>
- 58 [권영경의 열두 달 '식물칼럼 시즌 2']  
우리는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 60 [Michelle's Hyaang the Yoga 16]  
선자세 땅 위에 서는 법, 존재를  
다시 배우다
-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7회]  
형사소송법
- 64 김정옥의 TMI 문화 산책 - 4
- 65 2026 임원회비 납부명단
- 68 생활정보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PT CIPTA ORION METAL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20  
26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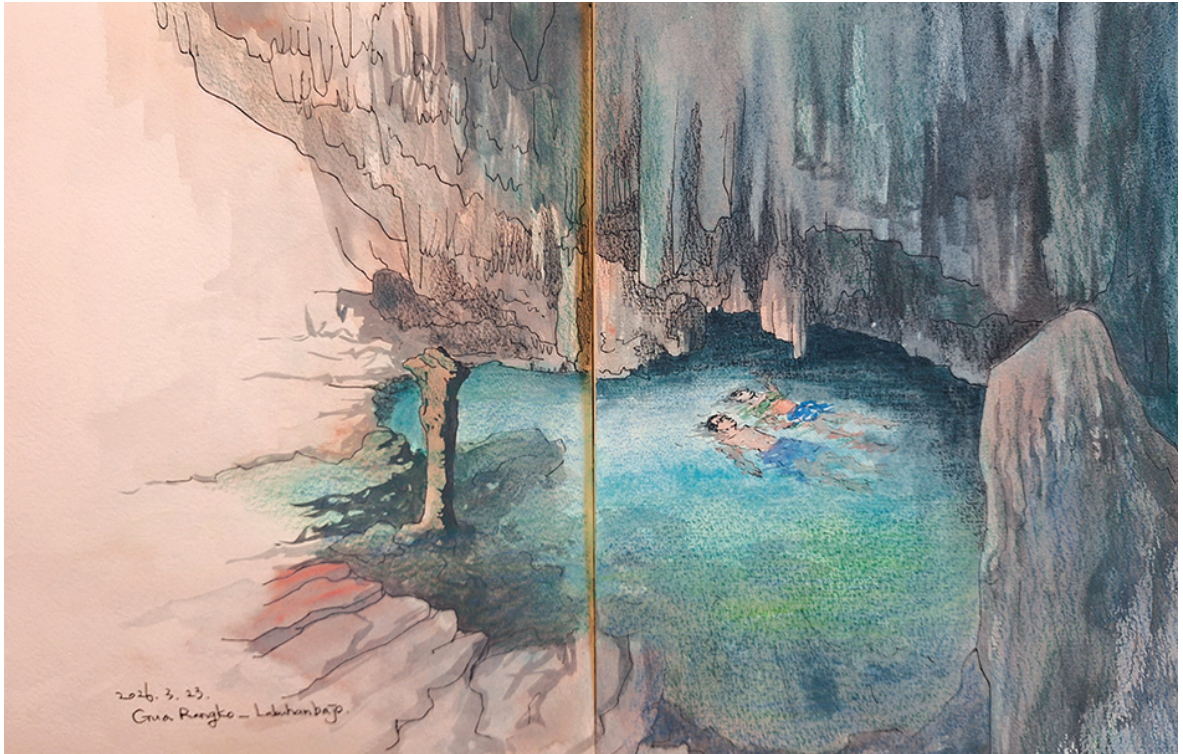
✉ support@destec.co.id

☎ +62 851 8681 6511

📷 destec\_official



destec



## 꽃잠

푸르스름한 옥빛 사이 일렁이는 윤슬,  
오랜 시간을 담아낸 종유석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만 가닥의 빛세레,  
물비늘 사이사이 스며들어 물끄럼말끄럼  
남쪽 바다의 여왕, 로로끼둘\*의  
품에 잠시 몸을 맡긴 듯

얼마나 지난 걸까?

\*꽃잠: 결혼한 신랑, 신부가 맞이하는 첫날 밤

\*로로 끼둘(Nyi Roro Kidul): 자바섬 남쪽 해안의 여신



사심 | 시(詩) · 라부한 바조의 랑코 동굴 그림

## 인도네시아 석유보조금의 딜레마



논설위원 신성철

### 왜 기름값은 싸지만, 정부는 점점 더 힘들어질까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Crude Oil) 운송의 핵심 길목이다. 이 지역이 불안해질 때마다 국제유가는 흔들린다.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은 곧바로 충격을 받는다. 인도네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싼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은 곧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에서 석유보조금은 오랫동안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여겨졌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교통비와 생활비가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에게 저렴한 연료는 일종의 생활 안전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정부가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 차액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2026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보조금(Energy Subsidy)과 지원 규모는 381조 루피아에 달한다. 추가 지원까지 포함하면 481조 루피아 수준이다. 이는 국가 전체 재정적자(Fiscal Deficit)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에서 매우 큰 비중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유가와 환율(Exchange Rate)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을 짤 때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 환율 달러당 16,500루피아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실제 유가가 90~100달러로 오르고 루피아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 부담은 훨씬 커진다. 쉽게 말해, 세계 시장이 흔들릴수록 인도네시아 정부 지갑도 빠르게 얇아진다.

### 왜 연료 가격은 정치 문제일까

인도네시아에서 연료 가격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정치와 직결된다. 수하르토 정권 시절, 싼 기름값은 국민 불만을 줄이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Financial Crisis) 당시 정부가 재정난 때문에 연료 가격을 크게 올리자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고, 결국 수하르토 정권 붕괴의 한 원인으로 이어졌다.

이 경험 때문에 이후 어떤 정부도 연료 가격 인상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기름값을 올리면 국민 반발이 크고, 그대로 두면 재정이 악화된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석유보조금의 가장 큰 딜레마다.

### 정말 서민에게만 도움이 될까

겉으로 보면 석유보조금은 서민 보호 정책 같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르다. 연료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거나 이동이 많은

중산층 이상 계층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모두에게 똑같이 싼 가격을 제공하는 방식은 반드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 소비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

또한 정부 예산이 연료 가격 유지에 묶이면 교육, 의료, 도로, 대중교통 같은 장기 투자에 쓸 돈이 줄어든다. 당장은 기름값이 싸서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바꾸려 했나

역대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유도요노 정부는 연료 가격 인상 대신 저소득층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현금보조금(BLT, Bantuan Langsung Tunai) 제도를 도입했다. 조코위 정부는 보조금을 일부 줄이고, 그 재원을 도로·항만·전력망 같은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에 활용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싼 기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 앞으로 중요한 것은 ‘기름값’보다 ‘누구를 지원하느냐’

이제 인도네시아의 핵심 과제는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느냐 유지하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바꾸는 일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싼 연료를 제공하기보다 △저소득층, 생계형 운전자,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절약한 재정을 교육·교통·복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 석유보조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다. 값싼 기름은 당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비용을 국가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질문이다.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선택해야 할 길은 ‘얼마나 싸게 유지할 것인가’보다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끝)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K-LAB,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와 K-LAB은 4월 28일 자카르타에서 한인 사회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인회 측 김종헌 회장, 양태화 수석부회장, 임성필 사무총장 등 회장단과 사무국이 참석했다.

K-LAB 측에서는 SCL그룹 이경률 회장, 하나로의료재단 이재운 전무, 김남용 고문을 비롯해 SCL사이언스 백세연 대표, 홈즈에이아이 임동석 대표, SCL그룹 홍보팀 하태원 본부장, K-LAB 인도네시아 박문규 법인장, 원종효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참석하여 한국형 의료 시스템의 현지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내 한인 교민과 지상사 주재원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의료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측은 한국의 선진 진단 의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중암 조기 스크리닝 및

유전자 검사 등 정밀진단 서비스를 강화하고, 최첨단 AI 기반 조기진단 솔루션을 도입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의료 시장의 핵심 트렌드인 '예방 의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종헌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형성 과정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의 역사적 발자취를 회고하며 파트너십의 심오한 의미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1970년대 척박한 적도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원목 생산과 석탄 개발 등 개척 정신으로 길을 닦고 JIKS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 요람을 일구어냈듯이, 이제는 그 상생의 가치를 보건 복지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단순한 진료 협력을 넘어 교민들에게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CL그룹 이경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이라며, 오랜 기간 축적해온 진단검사 및 건강검진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K-헬스케어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경제 특구(Medical Special Zone)' 조성 및 보건 의료 규제 완화(신보건법) 흐름과 맞

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K-LAB은 중부 자카르타에서 운영 중인 건강검진센터를 거점으로, 현지 국립중앙병원(RSCM)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한국형 의료 서비스의 표준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한인 사회는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한인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성케미컬 경영진, 재인니 한인회 재방문… “교민 사회와 지속적인 상생 모색”

- 친환경·글로벌 PU 허브 도약 발맞춰 현지 한인 사회와의 연대 강화

지난 4월 15일(수) 오후 2시, 한국의 대표적인 소재 화학 기업인 동성케미컬의 주요 경영진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만남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예방으로,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는 기업과 교민 사회 간의 흔들림 없는 유대감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동성케미컬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이만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덕우 인도네시아 법인장, 한석진 인도네시아 경영지원총괄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인회의 중추적 역할을 응원하는 한편, 최근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인도네시아 까라왕(Karawang) 폴리우레탄(PU) 신공장의 현황과 친환경·바이오 플라스틱 중심의 신사업 비전을 한인회 임원진과 공유했다.

이만우 사장은 “동성케미컬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폴리우레탄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인 사회의 역할이 컸다” 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현지 교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김종현 한인회장은 “바쁜 경영 일정과 대규모 현지 투자 속에서도 한인회를 두 번이나 잊지 않고 찾아주신 동성케미컬 임원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한인회 차원에서도 든든한 지원과 가교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화답했다.

혁신적인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성케미컬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간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진출 기업과 한인 공동체가 앞으로 만들어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 우리소다라은행 한창식 신임 행장 취임 첫날 한인회 방문, "교민 금융 동반자 역할 강화할 것"

- 신임 행장 공식 일정의 시작을 '한인 사회와의 소통'으로 열어, 현지화 및 상생 경영 의지 피력

지난 4월 14일(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Bank Woori Saudara, BWS)의 한창식 신임 은행장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를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한창식 행장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임기를 시작한 첫날 이루어진 공식 행보라는 점에서, 현지 교민 사회 및 진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신임 행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창식 행장과 박승환 이사가 참석하여 김종현 한인회장, 임성필 사무총장, 사무국과 상견례를 나누고, 현지 금융 현황 및 한인 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창식 행장은 우리은행 내에서도 기업금융과 리스크 관리 분야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자리에서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중대형 은행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사회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인회를 찾은 것은 교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교민과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현 한인회장은 “바쁜 취임 일정 중에도 한인회를 가장 먼저 찾아준 한창식 행장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우리소다라은행은 교민 경제의 혈관과 같은 존



재다”라며, “신임 행장 취임을 계기로 현지 금융기관과 한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가교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기업금융(CB)과 소매금융(BB)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중심의 상생 경영’을 기치로 내건 한창식 행장의 취임이 현지 교민 사회의 금융 편익 증진과 한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제107회(2026년)

JEJU 2026

## 제주 전국체전 볼링 선수선발전

### 참가자격

- 인도네시아 1년 이상 체류 중인 만18세 이상(2008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 107회 제주 전국체전(2026년 10월 16일(금) ~ 10월 22일(목))에 참가 가능하신 분



### 선발전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3일(토) 16:00 예정  
안졸 볼링장 :  
Jaya Ancol Bowling Center

### 참가 신청

2026년 5월 21일(목)  
17:00 까지

### 선수 선발

- 총 6게임 TOTAL PINFALL, 1 게임 BLOCK 이동
- 남녀 대표선수 각각 6인 중 상위 3인(금, 은, 동)을 선발전에서 선발
- 나머지 남녀 각각 3인은 대표선수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대회 참가 문의

- 이상호 부회장(0815-8693-9201) jktlsh5978@hotmail.com

### 기타 사항

- 원활한 선발전 진행을 위하여 5월 23일 15:30까지 대회 장소 도착 및 접수 요망
- 참가비는 무료

## 제107회(2026년) 제주 전국체전 볼링 선수선발전

### ▶ 참가자격

- 인도네시아 1년 이상 체류 중인 만18세 이상(2008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재외동포
- 107회 제주 전국체전(2026년 10월 16일(금) ~ 10월 22일(목))에 참가 가능하신 분

### ▶ 선발전 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23일(토) 16:00 예정
- 안쥘 볼링장 : Jaya Ancol Bowling Center  
☞ 하단 QR코드 참조

### ▶ 참가 신청

- 2026년 5월 21일(목) 17:00

### ▶ 선수 선발

- 총 6게임 TOTAL PINFALL, 1 게임 BLOCK 이동
- 남녀 대표선수 각각 6인중 상위 3인(금 · 은 · 동)을 선발전에서 선발
- 나머지 남녀 각각 3인은 대표선수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 대회 참가 문의

- 이상호 부회장  
- 0815-8693-9201  
- jktlsh5978@hotmail.com

### ▶ 기타 사항

- 원활한 선발전 진행을 위하여 5월 23일 15:30까지 대회 장소 도착 및 접수 요망
- 참가비는 무료

주관 및 주최: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후원: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Jl. Lodan Raya No.1, Ancol, Kec. Pademangan, Jkt Utara,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4430

주관/주최



재인도네시아 대한볼링협회  
KOREAN BOWLING ASSOCIATION IN INDONESIA

후원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MAP





## 제주4·3과 해녀, 자카르타서 세계와 만난다

— 제주4·3·해녀 공동 전시 5월 개최...  
‘기억과 삶’ 으로 전하는 평화 메시지 —

제주특별자치행정국 제공

제주4·3의 기억과 제주해녀의 강인한 삶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세계 관람객과 만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오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자카르타 ‘KOREA360’에서 공동 기획전시 ‘기억의 섬, 삶의 바다 - 제주’를 개최한다.

‘제주4·3과 해녀, 기억과 삶을 잇는 평화’를 주제로,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 기록물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함께 조명한다. 제주 역사와 삶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기억(제주4·3)’과 ‘삶(제주해녀)’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제주4·3 전시 공간에서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건과 이후 진상 규명·화해의 과정을 다룬다.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희생자 유족 증언, 시민사회의 진상 규명 운동 기록 등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자료를 중심으로, 제주4·3이 과거사 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형무소에서 온 엽서’ 복본 전시와 증언 영상을 통해 당시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제주해녀 전시 공간은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삶과 바다’, ‘공동체의 전승’,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며, 물질 과정과 협력 중심의 공동체 문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업 방식을 사진·영상·실물 자료로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해녀들이 바다를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인식해 온 점을 부각해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가치의 메시지를 국제 관람객에게 전한다.

개막식은 5월 12일 오후 사전행사·공식행사·리셉션으로 이어진다. 사전행사 ‘제주의 이야기’에서는 제주4·3 유족의 이야기와 제주해녀가 직접 전하는 해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리셉션에서는 제주향토 음식을 활용한 케이(K)-푸드 체험을 마련해 참석자 간 문화적 교류의 장을 연다.

전시 기간 중에는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해녀복 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은 제주의 아픈 기억이지만, 시민사회와 유족, 제주도민의 노력으로 진실을 밝히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녀 역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제주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제주를 ‘평화와 공존의 섬’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제주4·3이 지닌 평화·인권의 가치와 해녀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국제사회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제8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한국문학 단체인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에서 우리 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제8회 적도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인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는 본 문학상에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 대상

미등단 신인으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성인

## 부문

시, 소설, 수필(전 부문 자유주제)

## 응모 방법

시(3편 이상), 수필 2편, 단편소설 1편

## 분량

- ◆ 시는 자유분량, 수필은 A4 기준 2매(글자 11p)
- ◆ 소설은 1만자 내외

## 공모기간 및 접수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munhyup2022@outlook.com](mailto:munhyup2022@outlook.com)

## 특전

- ◆ 대상 수상자에게는 등단작가의 예우
- ◆ 당선작가 전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가입자격 부여

## 시상 내역

수상자 발표 : 2026년 8월 하순경, 시상식은 별도 공고

구분	인원	상금
적도문학상 대상	1명	1천만 루피아
최우수상	3명	5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우수상	3명	3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장려상	3명	2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응모작에 따라 부문별 수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의사항

- ◆ 응모작은 반드시 미발표 창작물이어야 함
- ◆ 표절 및 저작권 시비가 있는 경우 당선취소 됨
- ◆ 응모작에는 별도의 용지에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접수불가)
- ◆ 당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공유

## 문의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62877 4988 3671 [wnaud0129@hanmail.net](mailto:wnaud0129@hanmail.net)



# PLN Nusantara Power · PT VOGO ARSTROMA, 탄소 포집 기술 협력MOU 체결,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새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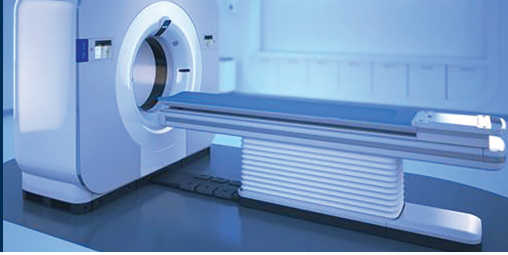
PT VOGO ARSTROMA INDONESIA 제공



탄소중립 기술 협력 MOU 체결. PLN NP M. Irwansyah Putra 화력발전 운영이사과 PT VOGO ARSTROMA INDONESIA 권정상 대표이사가 2026년 4월 9일, CCUS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음.

양측 간 낙관의 강력한 상징이 된 PLN Nusantara 파워 석탄 발전소 운영 책임자 M. 이르완사 푸트라와 VOGO-ARSTROMA 사장 권정상 간의 굳건한 약속

**보고(VOGO) 그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글로벌 플랫폼으로, 교육·문화·산업·첨단기술 교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재 양성을 핵심 축으로 한 Global Leader Talent Development Support Center를 통해 교육과 기술,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협력 구조를 실현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 그룹의 인도네시아 협력은 해양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산업인 해양·수산 분야를 기반으로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산업부와 농업, 고등교육·과학기술, 국가개발기획(BAPPENAS), 종교, 문화 등 주요 부처로 협력이 확장되며 국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 그룹은 에너지·환경·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할랄 산업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체계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가 발전 전략과 긴밀히 연계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술 협력이나 투자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사람을 세우고 가치와 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이며, 인도네시아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기적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고 그룹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협력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공사(PT PLN)의 발전 중간지주회사인 PLN 누산타라 파워(이하 PLN NP)가 한국계 탄소 포집 기술 기업인 PT VOGO ARSTROMA INDONESIA(이하 ARSTROMA)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CCUS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발전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MOU 체결식은 지난 4월 9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PLN 누산타라 파워 본사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PLN NP의 이르완샤 푸트라(M. Irwansyah Putra) 화력발전 운영이사 및 PT VOGO ARSTROMA INDONESIA의 권정상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양사 간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 분리막 기반 CCUS 기술의 핵심 경쟁력: 기존 방식 대비 공정 단순화 및 경제성 확보

이번 협력의 핵심은 PT VOGO ARSTROMA INDONESIA가 보유한 분리막(Membrane)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PLN NP 발전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잠재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발명가 신기영 박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기존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채택하여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용제 재생 과정에서 막대한 열에너지를 소비하며, 용제 열화 및 독성 물질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동반된다. 또한 대규모 설비 규모와 높은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는 상업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PT VOGO ARSTROMA INDONESIA의 분리막 기반 기술은 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재 고유의 선택적 투과 특성을 활용해 배기

정을 대폭 단순화하여 운영비와 유지보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설비의 모듈화가 가능해 다양한 규모의 발전소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을 ‘K-기후 기술 대응’ 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국제 협력 무대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한 협력 구조는 단순한 기술 라이선스나 설비 수출에 그치지 않고, 현지 산업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적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었다.

협력의 첫 단계로, PLN NP 발전 시설 내에 일일 이산화탄소 포집량 1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

### VOGO Group Affiliates

- VOGO ENERGYSOLUTIONS
- VOGO ENTERTAINMENT
- VOGO INTERNATIONAL
- VOGO CONSULTING
- VOGO FOUNDATION
- GHCC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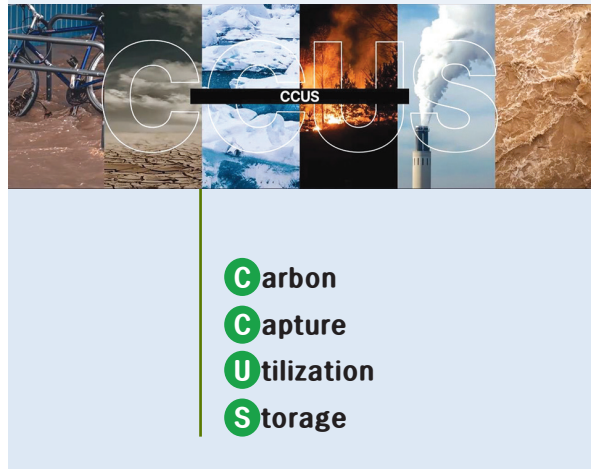
트(Pilot Plant)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 시설은 실제 발전소 운영 환경에서 ARSTROMA 분리막 기술의 기술적 성능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MOU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9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구축 완료 및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일럿 단계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업적 규모로의 확대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Net Zero 2060' 목표 부합 및 국가 탄소 감축 전략의 핵심 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 Emission) 달성을 국가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PLTU)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구조상,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CCUS 기술의 도입은 기존 발전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PLN NP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간의 이번 협력은 바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평가받고 있다.

PLN NP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협력 정진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내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을 포함한 로컬라



이제이션(현지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우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더불어 국가 산업 자립을 촉진하려는 우리의 약속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PLN NP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다수의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PLTU)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협력의 실증 단계가 성공할 경우 기술 적용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규모는 매우 방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인니 기후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

#### 권정상 대표이사 “기술 이전을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

이번 협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기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동행. PLN Nusantara Power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관계자들이 2026년 4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선언하며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한다.

변화 대응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명식에서 권정상 대표 이사는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는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자원 최적화라는 두 가지 전략적 방향이 맞닿은 역사적 계기”라며, “이번 협약은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최신 기술을 새로운 산업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 조성하여 현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 이전을 넘어선 산업 파트너십의 비전을 천명했다.

PT VOGO ARSTROMA INDONESIA 측도 공식 성명을 통해 “분리막 기반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내에 새로운 친환경 산업을 구축하고,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전략 방향을 명확히 했다.

### “CCUS 기술 상용화의 관건은 경제성과 정책적 지원의 병행”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의 성공 여부가 기술적 실증과 더불어 경제성 확보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CCUS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설비 투자 비용과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처 및 저장소 확보 문제로 인해 상용화 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 환경을 통해 ARSTROMA의 분리막 기술이 기존 방식 대비 경제적 우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및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 거래제와 같은 정책적 수단을 통해 CCUS 프로젝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이번 협력의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탄소 포집 산업화의 분기점 PLN 누산타라 파워와 PT VOGO ARSTROMA

INDONESIA 간의 이번 CCUS 기술 협력 MOU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첨단 분리막 기술과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발전 인프라의 결합은 단순한 양자 간 기업 협력을 넘어, 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번 MOU가 제시한 협력 청사진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지역의 탄소 포집 기술 허브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양측은 이번 MOU를 기점으로 단계별 협력 로드맵을 이행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2060 넷제

# 미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시장 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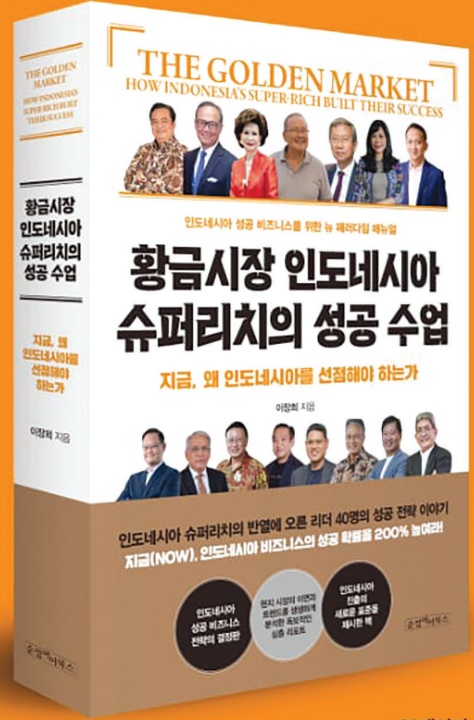
최초로 인도네시아 글로벌 리더들이 현지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책!

- 인도네시아 성공 비즈니스 전략의 결정판!
- 현지 시장의 이면과 트렌드를 생생하게 분석한 독보적인 심층 리포트
- 인도네시아 진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책

##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끄는 슈퍼리치들의 '성공 전략 시크릿'

인도네시아에서 실패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인도네시아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한 권

한국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480페이지

저자: 이장희 코트라(KOTRA)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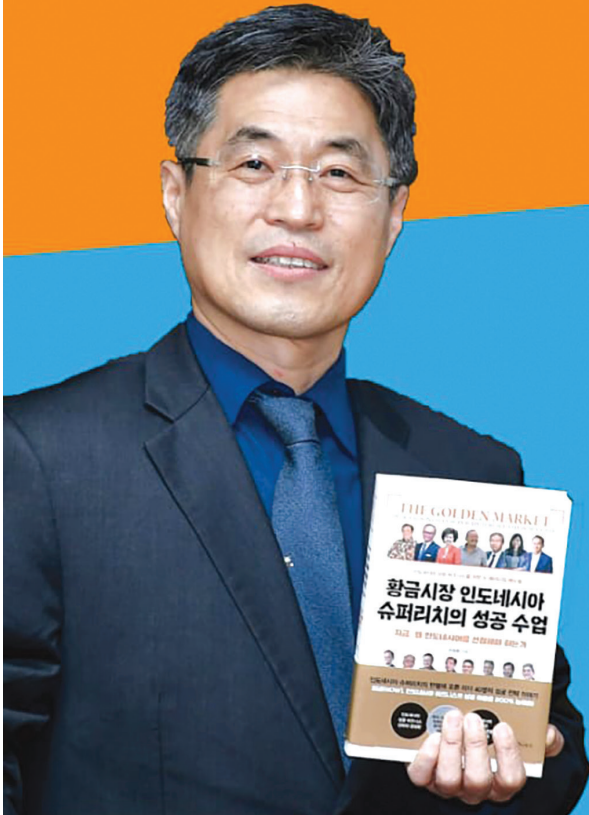


사진 출처: 한국일보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새로운 지침서

##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 ■ 인도네시아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뉴 패러다임 매뉴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중국을 대체할 필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가 2050년까지 중국, 미국, 인도와 함께 세계 경제 4강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본 도서는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하는 한·인니 경제 지형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담고 있다. 단순한 시장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제, 역사, 종교,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시각을 제시한다. 500년 전 육두구 향신료로 세계 패권의 중심이었던 인도네시아가 현재 니켈을 무기로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흡스테드 지수를 활용한 문화 분석과 이슬람 비즈니스 매너 등 현지 시장의 이면을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각으로 해부한다.

### ■ 한·인니 비즈니스 리더 40인의 실전 성공 로드맵

저자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만난 정책 결정권자, 세계적 석학, 대기업 CEO, 창업가 등 양국 리더 총 40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성공 법칙을 집대성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의 상징적 인물인 무궁화 유통 김종현 현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코린도 그룹 승은호 회장,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뿌라따마 아바디 인더스트리 서영률 회장 등 존경받는 한인 리더들의 귀한 경험과 필승 전략이 알차게 수록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일궈온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현지 진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된다. 특히 현직 한인회장의 실전 제언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교민들에게는 단순한 경제 서적 이상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뉴얼로서의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도서명 |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치의 성공 수업  
부제 | 지금,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해야 하는가  
저자 | 이장희  
발행처 | 순정아이박스  
가격 | 36,500원  
한국 주요 서점과 인도네시아 무궁화 주요 지점,  
뉴서울, K-마트 등에서 절찬리 판매 중  
관련 문의 | 순정아이박스  
☎(0811-806-7774, sjkibook@gmail.com)

### ■ 각계 전문가 추천사

**이상덕(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하여 현장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하며, 향후 50년 양국 관계 발전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함.

**임성남(전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진면목을 이해시키며,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세안 전체 시장에 도전하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책임.

**김승남(잡코리아 창업자):** 해외 현지에서 실패를 줄이고 곧바로 적응하는 방법과 좋은 파트너를 만나 함께 성장하는 비책을 담고 있어 모든 기업가에게 용기를 주는 지침서임.

**황만순(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숫자를 넘어선 통찰을 제공하며, 현장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하는 뛰어난 분석서임.

### ■ 저자 소개 및 구매 안내

저자 이장희 전 코트라(KOTRA) 자카르타 무역관장은 30여 년간 근무하며 자카르타 무역관장 등을 역임한 글로벌 통상 및 투자 유치 전문가로 현재 코트라 아카데미 인도네시아 경제·경영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수훈하였다.

## 2026년 강력한 엘니뇨 예보, 이란 전쟁과 맞물려 글로벌 식량 위기 고조

지난 10년 중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 세계 식량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이란 전쟁으로 연료비 상승과 비료 부족 사태까지 겹치며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엘니뇨의 영향과 아시아 농업 타격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다. 과거 2015~2016년 강력한 엘니뇨 발생 당시에도 아시아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닥쳐 곡물 및 유지작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8월과 9월 사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이는 쌀, 면화, 대두 등 여름 작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겨울 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기상청은 북반구 여름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보고 있고, 중국 기후 당국은 엘니뇨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상 정보 회사 메테오매틱스의 기상학자 크리스 하이드는 “호주와 인도 일부 지역에서 폭염과 건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는 팜유와 쌀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엘니뇨가 지속될 경우 팜유 생산량이 5%에서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말레이시아 팜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물 생육 주기 때문에 가뭄 영향이 6개월에서 15개월 후에 나타난다며, 엘니뇨 현상이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생산량이 5~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이미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수개월째 이어진 강우량 감소로 물, 비료, 연료가 부족해지면서 농민들이 밀과 카놀라 파종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는 올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몬순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8월

과 9월 사이 극심한 가뭄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는 쌀, 면화, 대두 등 여름 작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겨울 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강력한 엘니뇨로 인한 남부 지역의 홍수 위험이 커지면서 쌀과 채소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엘니뇨는 북미와 남미에는 더 많은 비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옥수수과 콩 수확 시기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폭우는 곡물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수확을 방해할 수 있다.

### 이란 전쟁이 불러온 ‘비료 대란’

날씨만 문제가 아니고, 이란 전쟁도 세계 농업에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 요소(urea) 교역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비료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강우량까지 부족해지면 농민들이 비료 사용을 포기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45년까지 자바 외 지역에 1만4,000km 철도망 구축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20년간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전역에 총 1만4,000km 규모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확장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자바섬 중심 구조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인프라·지역개발 조정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에 약 1,200조 루피아(약 694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금액은 매우 크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며 “재원은 국가예산만으로 충당하지 않고 민간 부문 참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계획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65조 루피아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3대 주요 섬에서 철도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수마트라는 현재 약 1,871km의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와 연결성 확대 수요를 충족하려면 추가로 7,837km가 더 필요하다. 칼리만탄은 현재 운영 중인 철도망이 전혀 없으며, 최소 2,772km 규모의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술라웨시는 현재 약 109km의 철도 노선만 운영 중으로, 주(州)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약 3,284km가 추가로 요구된다.

아구스 장관은 이어 “현재 우리의 철도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솔직히 봐야 한다” 며 “그러나 이것이 비판의 이유가 아니라, 더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할 동기” 라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는 인도네시아 국가 교통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여객 운송의 약 4%, 물류 화물의 약 1% 수준에 그친다.

아구스 장관은 도로와 철도 간 투자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3년 도로 예산은 약 86조9,000억 루피아에 달한 반면, 철도 인프라 예산은 약 6조5,000억 루피아에 불과했다. 그는 “도로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도로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면서도 “다만 철도 투자에는 분명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함께 바로 잡아야 할 과제” 라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예비군으로 양성 착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1,77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비군(Komcad) 양성을 위한 기본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방위 정책의 일환으로, 관료 조직 내 규율과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예비군 제도는 각 부처 공무원이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국가 비상사태 시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방부 산하 예비군전략청장인 가브리엘 레마 중장은 이 프로그램이 군을 넘어 국가 방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브리엘 중장은 이날 자카르타 할림 공군기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애국심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국가적 과제의 일환” 이라고 말했다.

1단계에서는 55개 부처와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 1,773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2,000명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추가 모집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4,000명의 공무원을 예비군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약 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며, 수료 및 예비군 공식 편입은 6월 초로 예정돼 있다. 교육 과정은 체력, 규율,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국방 체계 현대화와 함께 민간의 국가안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전력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포함해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행정 조직 내 협업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훈련을 마친 공무원들이 각 부처로 복귀한 뒤, 훈련 과정에서 익힌 규율과 팀워크를 업무에 적용시킨다.

가브리엘 중장은 “이러한 규율 의식이 개인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구독·광고 문의

■ dailyindo@gmail.com

■ 카카오톡 ID: dailyindo99



## 인사말이라는 이름의 작은 우주

조연숙 |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인사말은 한 사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압축한 언어입니다. 인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관계를 시작하는 방식이며,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입니다. 짧은 한마디 속에 각 문명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철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모든 철학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지만, 발리의 힌두교와 불교의 와이삭(Waisak), 크리스마스과 음력설이 모두 국가적 의미를 갖습니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Assalamu'alaikum), 샬롬(Shalom), 옴 스와스티아스투(Om Swastiastu), 나모 붓다야(Namo Buddhaya), 살람 케바지칸(Salam Kebajikan)"을 차례로 읊던 모습은 단순한 형식적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진리가 공존 가능한 질서를 모색하는 구조이자,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국훈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사말은 다원주의(Pluralism)를 살아가는 생활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 불교권의 “나모 붓다야(Namo Buddhaya)”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으로, 외부 성취보다 내면의 평정을 지향하는 수행의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평화를 빕니다(Salam sejahtera)”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 신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가 올바른 질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축복입니다.

발리 힌두교의 “옴 스와스티아스투(Om Swastiastu)”는 인간이 우주 질서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묻어 있습니다. 이는 너삐(Nyepi)의 침묵과 소란, 정화와 재출발이라는 순환적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균형과 조화를 향해 있습니다.

이슬람의 인사 또한 공동체를 재결합하는 윤리적 장치입니다. 라마단(Ramadhan)이 끝나는 이돌 피트리(Idul Fitri) 기간, “모혼 마압 라히르 단 바틴(Mohon Maaf Lahir dan Batin: 몸과 마음으로 지은 잘못을 용서해 달라)”이라고 인사하며 개인이 정화된 후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의식을 거칩니다. 라마단에 단식을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며 나누는 인사인 “미날 아이딘 왈 파이진(Minal Aidin Wal Faizin)”은 우리가 다시 순수한 상태(Fitrah)로 돌아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향한 지향점 또한 뚜렷합니다. 음력설(Imlek)이 되면 거리에 내걸리는 “공시파차이(Gong Xi Fa Cai)”는 번영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이는 물질적 탐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내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현실적 희망의 표현입니다.

인사말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한순간에 지워줄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는 각 공동체가 오랜 시간 지켜온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사법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공존을 향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사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작고도 확실한 고백인 셈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곧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평화를, 누군가는 용서를, 또 누군가는 축복을 먼저 건넵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이 짧은 문장들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내일을 가리키는 지도가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특별한 이유는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수많은 지도가 하나의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드러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장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나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공동체의 평화와 서로를 향한 존중이 따뜻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안녕(安寧)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다. 초대형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선장이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하다가, 현지 정부가 금지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다. 열악한 타국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복역을 마치고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사건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남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어느 날,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교우와 지인이 찾아와 “국경 지역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튿날에는 한국에서 급히 입국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왔다. 대기업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사리에 밝고 신중해 보였으나, 동생의 소식 앞에서는 간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동생은 K해운 소속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최근 국경 해역에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관세청 감시반에 체포되어, 현재 시설이 극도로 열악한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K해운은 화물선 K17호가 나포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습에 나섰다 한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장관이 현지 관세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도 대사의 협조 요청서를 지참해 현지 관세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현지법에 따른 처벌 절차만이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볼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동생이 큰 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곧장 선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 국경 지역 공항에 내린 뒤, 택시로 30분, 다시 페리를 타고 2시간을 더 이동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교도소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선장의 모습은 처참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필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첫마디를 뱉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했을 뿐입니다!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용된 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갇혀 있어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통풍도 안 됩니다. 행패를 부리는 수감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으니, 제발 햇살이 들고 바람이라도 통하는 앞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자는 선장을 달랜 뒤 즉시 교도소장을 만나 방 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관세청 지방청 수사과장을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

다. 수사과장은 선장을 비롯해 현지 선원, 관세청 감시관, 선박 대리점 지점장, 관세 전문가 등이 이미 신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K해운 본사에서 온 P 상무에 대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관세청 본청 수사관이 별도로 신문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겨 담당 검사를 만났다. 검사는 이미 선장을 기소한 상태였다. 필자는 간곡한 요청 끝에 형사 파일과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류상 선장은 ‘개인 밀수 피고인’ 신분 이었고, K해운의 P상무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K해운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현지 로펌의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개인 밀수범은 징역 1~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지지만, 법인(회사) 밀수범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이 100억 루피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밀수에 이용된 선박 자체가 몰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6만 톤급 대형 화물선인 K17호의 몰수를 막기 위해, 회사는 “선장에게 원광석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선장을 개인 밀수범으로 몰아세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필자는 K해운과 선박 대리점에 선장과 주고받은 모든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도착한 기록들은

선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본사는 선장에게 인도네시아 S지역에서 원광석을 싣고 중국 C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도, “인도네시아에는 저유황 선박유가 없으니 인근 국가에 들러 기름을 채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문제는 행선지였다. 현지 해운청이 발급한 출항 허가서상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아 내의 다른 항구(S항)였다. 선장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인근 국가로 향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허가된 항로를 이탈해 원광석 4.5만 톤을 싣고 밀수 출하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선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전가했다.

공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인 지방법원장과 담당 검사를 차례로 만나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선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구형했으나,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간곡한 요청과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사를 설득해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장은 지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모범수 심사를 통과했고,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뒤 대사관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가출소했다. 이후 이민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회사의 지시를 충직하게 따랐던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였다. 이후 K해운이 선장에게 합당한 배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직원은 회사의 지시가 현지의 실정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지시를 수행하기 전 그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직은 때로 거대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거나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인도네시아 유물 - 첫 번째 이야기

# 코끼리 머리를 한 신, 모든 문을 열어준다

"시작이 반이다." 나이가 들수록 맞는 말임을 실감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반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눈앞의 장애물이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정진할 때, 어김없이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장애를 걷어내고, 지혜를 주고, 학문의 길을 지켜주는 신 - 인류의 소망을 실현시킬 그 존재를 힌두문명은 일찌감치 만들어냈다. 코끼리 머리에 통통한 배, 네 개의 팔을 가진 '가네샤(Ganesha)'가 그것이다.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석상관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가네샤다. 우연이 아니다. 힌두교에서 가네샤는 '문의 수호자'이자 '장애를 제거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박물관 입구를 지키는 것은 그의 역할에 딱 맞는 자리다.

이 석상은 중부 자바 마젤랑의 '바논 사원(Candi Banon)'에서 출토된 것으로, 9세기 제작으로 추정된다. 높이 150cm, 통통한 다리에 열린 탐스런 열



국립박물관 소장 가네샤 석상  
(9세기, 중부 자바 | 바논 사원 출토)



켜켜이 쌓인 이야기

매같은 발가락을 자랑하며 연꽃위에 앉아있다. 네 개의 손에는 각각 도끼, 포승줄 - 각각 장애물을 부수고 그것들을 훑아매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 - 지혜의 단물이 담긴 종지, 그리고 자신이 상아 한 쪽을 쥐고있다.

부러진 상아의 사연은 이러하다.. 어느 날 밤, 가네샤는 잔치에서 양껏 먹고 부른 배를 안고 자신의 승물을 타고 가다 쥐가 배를 보고 놀라는 바람에 고꾸라졌고 불룩한 배가 터져 먹은 음식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찬드라(달의 신)가 크게 웃었고 이에, 화가 난 가네샤는 자신의 상아를 뽑아 달을 향해 던져버렸다. 상아에 맞아 달은 한쪽이 부러져 작아지게 되었고((초승달), 어두워진 밤길에 불편을 호소하던 신들의 간청으로 다시 달을 둥글게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달은 몸을 부끄러워 몸을 숨기며 모습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또다른 버전으로는 힌두 최고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바가바드기타의 저자인 비야샤가 마하바라타를 구술할 때 이것을 받아적다가 그 방대한 양때문에 펜이 떨어지자 자신의 상아를 부러뜨려 계속 받아적었다. 이렇듯 힌두교 신화의 상상력의 한계없음과 황당무계함은 가히 그리스 로마신화를 능가한다.

이 석상이 만들어진 9세기, 중부 자바에는 마타

# 박물관 유물이야기

## 켜

### “켜켜이 쌓인 이야기를 양범은 도슨트가 밝혀 드림”

(주: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 '켜'를 강조하기 위해 '밝켜'로 표기했습니다)



람 힌두 왕국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보로부 두르 대불탑과 프람바난 힌두사원 같은 경이로운 건축물을 남긴 바로 그 시대다. 인도에서 건너온 힌두교는 자바의 토착 신앙과 섞이며 독자적인 꽃을 피웠고, 가네샤 역시 자바인의 손에서 더욱 풍요롭고 넉넉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통일신라이후 귀족불교에서 대중불교로 나아가던 그 시기 우리의 석굴암 본존불(751년)과 예밀레종(771년)은 개인적염원을 빌기보다는 불국도를 세워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굳은 의지를 담아냈지만, 시기적으로 귀족불교에서 대중불교로 나아갔다는 점, 인류의 염원인 현생의 평안함을 빌면서, 한반도에서는 화강암과 청동으로 불상을, 자바에서는 안산암으로 신들을 빚어 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가네샤의 위상이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가네샤는 힌두교 최대 축제 '가네샤 차투르티'의 주인공으로 꽃과 향으로 섬김을 받는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이 전파된 이후 힌두교가 발리 섬으로 축소되면서, 가네샤는 살아있는 신앙의 대상이 아닌 '문명의 기억'으로 박물관 안에 남게 되었다. 같은 신이지만 한쪽은 여전히 신이고, 다른 한쪽은 역사가 되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 가네샤는 어쩌다 사람의 몸에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또 슬프고도 황당한 사연이 있다. 요가와 명상으로 오랜시간 출타해 있던 집에 돌아온 시바는 옥실았을 지키고 있는 낯선 소년을 보고 격분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린다.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인 줄도 모른 채, 목욕을 마치고 나온 시바의 아내 파르바티는 통곡하며 오랜시간 집을 비워 자신의 아들도 못알아보고 목을 베어버린 무책임한 남편을 원망한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시바는 당황해서 "처음 만나는 생명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고, 신하가 데려온 것이 하필 코끼리였다. 잘못을 수습하려다 더 크게 벌인 사고 - 어딘지 모르게 매우 인간적인 신의 가족 이야기다.

다음 호에서는 이 가족을 제대로 소개한다. 파괴와 창조를 동시에 관장하는 아버지 시바, 우주의 어머니 파르바티, 그리고 형제 카르티케야까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할 신들의 가족사, 기대하시라.

다음 호 예고:  
시바, 파르바티,  
그리고 신들의 가족 드라마



## 전 세계 메타 오피스 도장깨기! 자카르타를 접수한 한복 선비 김사다함

- 한복 입고 메타 인도네시아 입성해 현지 인플루언서들을 홀리다



**Q.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왜 스스로를 '선비'라고 부르시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온 세상을 유람하며, 한복과 한국 전통을 알리고 온 세상의 전통을 배우는 한복생활인 김사다함이라고 하요. 자카르타 선비란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다스림)을 삶의 목표로 삼았는데, 자신을 수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이라, 그 마음가짐이 지금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과 상통이라 그리 부르고 있소.

**Q. 한국에서도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것이 흔치 않은데, 특별히 한복을 고집하며 '김사다함 선비'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지금 한국은 한복 중 남자한복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누구도 입지 않는 전통의상으로,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비싸고 안 좋은 인식들이 가득 심겨 있는데, 이 안 좋은 인식들을 부수고, 우리의 전통 또한 타국의 전통들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걸 일상에서부터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소.



**Q. 수많은 나라 중 인도네시아를 선택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도네시아는 대단한 나라인 것이, 전통의상과 함께 현대를 살아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오. 사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보다는, 그 멋진 전통 보존에 대해 배움을 얻고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사리나 쇼핑몰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큰 감명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 한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배우러 와야겠다 싶을 정도로 멋있었소.

**Q. 현대적인 자카르타와 전통이 살아 있는 족자카르타에서 여행하며 느낀 각각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현대적인 자카르타에서는 내가 생각하던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발전적이고 화려한 장소였소.

또한 어마어마한 인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소.

족자카르타에서는 굉장히 멋진 보로부두르 사원과 따만사리, 그리고 크라톤의 유적지들과 잘란말리

오보로의 여유 있는 밤의 모습들에 다양한 관광의 매력에 푹 빠졌소.

**Q. 여행 중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치 한국인이 굿모닝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더이다.

또한 한 유적지에서 만난 할머니께서는 나를 TV에서 봤다며 감격해서 울먹거리셨는데, 알고 보니 나를 주지훈으로 착각했었소. 허허.

**Q. 메타 인도네시아 오피스에서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며 느낀 그들의 열정이나 창의성은 어땠나요?**

각국의 메타 오피스를 들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메타 오피스는 자국의 전통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소.

또한 인플루언서들도 어떤 협업을 하고 싶은지 준비해 온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나를 불편하지 않도록 간단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 문화를 그들의 문화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협업을 준비했더이다.

덕분에 어렵지 않고 즐겁게 만나질 놀다 올 수 있었소.

**Q. 한복과 바틱, 두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의상이 가진 공통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형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형태 속에서 새로운 것을 꺼내오고, 또한 그 형태의 원형에 대해 늘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며, 보존과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복과 바틱이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느꼈소.

**Q.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리나 쇼핑몰에서 우리 한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사리나 쇼핑몰 속에는 전통 바틱과 모던 바틱으로 가득 차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가격대 또한 한복보다 비싼 옷들도 많았소.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통과 현대적인 것을 모두 모아두었음에도 그렇게 우아하게 꾸며둘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소.

한국에도 매년 한복상점이라는 한복 브랜드의 결집이 되는 행사가 있는데, 나는 과연 우리 모든 브랜드가 모여서 쇼핑몰을 이룬다면, 사리나만큼 우아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 멋진 쇼핑몰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소.

**Q.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인도네시아 메뉴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사뎀과 른당, 그리고 나시잠블랑을 좋아하요. 사뎀과 른당은 훌륭한 빈땅의 안주로 매일 먹었고, 나시잠블랑은 인도네시아 치즈 본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음식이었소. 박피아와 가도가도, 칠리크랩, 사뎀 아얌..... 사실 고르라면 끝도 없을 만큼 맛있는 음식들에, 10일 동안 7kg 살이 썩서 한국으로 돌아왔소.





**Q.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음 활동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음 일정은 미국 텍사스와 싱가포르 유람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나라의 전통들을 함께 유람할 예정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의 전통과 유적들을 방문하고, 그 속에서 그 나라 친구들과 함께 전통을 향유하며, 즐겁게 많은 세상을 돌아보는 것이 계획이요. 많은 나라를 유람하고 그 나라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의 전통을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고 입혀줌으로써, 어렵지 않고 서로 즐겁게 문화를 향유하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라오.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소. 나에게 늘 행복함을 주는 것에 꾸준히 행복하면, 언젠가는 그 행복이 두 배, 세 배 되어 갈 것이요.





##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의 특징과 기업 대응 전략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최근 인도네시아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의 데이터 확보 능력이 강화되면서, 단순 신고 검토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신고 이상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이 선정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 대상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세무조사의 주요 특징과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SP2DK 중심의 사전 검증 강화

최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료해명요구서(SP2DK)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SP2DK는 단순한 질의서가 아니라 사실상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발송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 2. 데이터 기반 조사 확대

현재 세무당국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서로 연계되어 분석되며, 단순 신고 오류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부분 대응’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 3. 이전가격 및 해외거래 집중 점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련 검토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다음 항목이 주요 쟁점이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단순히 이익률만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이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충분한 방어 논리가 필요하다.

### 4. VAT(부가세) 이슈의 지속적 확대

최근 세무조사에서 VAT 이슈는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히 일부 기업은 안분계산을 적용하지 않아 대규모 세액 조정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5. 기업의 대응 전략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 ① 신고 데이터 간 정합성 확보
- ② 이전가격 문서화 및 논리 보완
- ③ VAT 처리 체계 점검
- ④ SP2DK 대응 프로세스 구축

특히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다.

인도네시아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경험 중심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제15회

#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2026.6.15(월)~7.15(수) 18:00 마감

모국어로 빛은 이야기, 인도네시아의 풍경이 되다

2010년 첫 씨앗을 심은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이 어느덧 열다섯 번째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글이 숲이 되고, 시가 길이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국어로 직조된 삶의 서사를 발견해 왔습니다. △소설 △수필 △시 - 장르를 넘어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공모 주제:** 내가 경험한 인도네시아 문화, 내가 만난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세안 등

**공모 대상:** 학생부 (중·고등학생) 및 일반부 (대학생·성인)

**작품 형식:** - 한글(hwp) 또는 워드(doc)  
- 산문 A4 3~4쪽, 운문 2편 (맑은고딕, 10p, 160%)  
-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발표:** 2026년 7월 말

**시상식:** 2026년 9월 19일(토) Gd. Kesenian Jakarta

www.ikcs.kr  
band.us/@ikcs  
@ikcs.kr  
ikcskr@gmail.com  
0856-9350-1118

접수



[bit.ly/ceritaindonesia2026](https://bit.ly/ceritaindonesia2026)

구분	일반부	학생부
대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상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상
최우수상	Dinas Kebudayaan DKI Jakarta장상	President University 설립자상
우수상	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KOSA)장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Tugu Group Heritage상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장상
특별상	F. Widayanto 갤러리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Historika Indonesia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장려상	한인니문화연구원상	한-인니 산림협력센터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시상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제5회 「생태이야기」 문학상 공모 Sayembara 「Cerita Ekologi」 ke-5

Periode: 15 Juni-15 Juli 2026 18:00 WIB

- 참가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공모 주제:** 인도네시아의 숲과 나무,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 인도네시아 거주 이야기  
**장르:** 체험수기, 동화, 동시 등  
**작품 형식:** - 산문 A4 3쪽 / 운문 2편 이상  
 - 한글(hwp) 또는 워드(doc) 파일 제출 (지원자이름\_작품명)  
**발표:** 2026년 7월 말  
**시상식:** 2026년 09월 19일, Gd. Kesenian Jakarta
- peserta:** Terbuka bagi siswa SD di Indonesia  
**Tema:** Cerita hutan, pepohonan, dan ekologi Indonesia  
 Pengalaman tinggal di Indonesia  
**Jenis Karya:** Catatan pengalaman, dongeng, puisi anak, dan lain-lain  
**Format:** - Prosa A4 3 page / Puisi 2 karya  
 - Hangeul (hwp) atau MS Word (doc), File: Nama\_JudulKarya  
**Pengumuman:** Akhir Juli 2026  
**Penganugerahan:** 19 Sep 2026, Gd. Kesenian Jakarta

접수  
Pendaftaran



[bit.ly/ceritaekologi2026](http://bit.ly/ceritaekologi2026)

www.ikcs.kr  
 band.us/@ikcs  
 @ikcs.kr  
 ikcskr@gmail.com  
 0856-9350-1118

구분 Kategori	한국 초등학생 Siswa SD Korea	인도네시아 초등학생 Siswa SD Indonesia
대상 Utama	한인문화연구원장상 Direktur IKCS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Direktur KIFC
최우수상 Terbaik	자카르타한국학교장상 Kepala Sekolah JIKS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Ketua Asosiasi Korea Indonesia
최우수상 Unggulan	한-인니산림협력센터상 KIFC	한국국제교류재단 사무소 소장상 Ketua KF



# 제3회 「나의 한국 이야기」 문학상 공모 Sayembara 「Kisah Koreaku」 ke-3

Periode: 15 Juni~15 Juli 2026 18:00 WIB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 ◆ **참가 대상:**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공모 주제:** 내가 만난 한국, 내가 경험한 한국문화, 한국과 나의 미래  
**장르:** 에세이, 이야기, 시, 감상문 등
- ◆ **Terbuka untuk WNI** (Pelajar, Mahasiswa, dan Umum)  
**Jenis Karya:** Esai, cerita, puisi, ulasan (format bebas)  
**Tema:** Korea yang aku temui, Pengalaman K-Culture, Masa depanku bersama Korea
- ◆ **Format:** - Prosa 3~4 page A4, Puisi 2 karya  
- Malgun Gothic, 10pt, 160%  
- Hangeul, MS Word (hwp, doc),  
- Nama file: NamaPeserta\_JudulKarya
- ◆ **Pengumuman:** Akhir Juli 2026  
**Penganugerahan:** 19 Sep 2026, Gd. Kesenian Jakarta

[www.ikcs.kr](http://www.ikcs.kr)  
[band.us/@ikcs](https://band.us/@ikcs)  
[@ikcs.kr](https://www.instagram.com/ikcs.kr)  
[ikcskr@gmail.com](mailto:ikcskr@gmail.com)  
 0856-9350-1118

Pendaftaran



[bit.ly/kisahkoreaku2026](https://bit.ly/kisahkoreaku2026)

대상 Utama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상
최우수상 Terbaik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우수상 Unggulan	한인문화연구원장상
특별상 Khusus	Saint James TableWare상
장려상 Harapan	한인문화연구원 (IKCS)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상 (KFIC)상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SAINT JAMES  
TABLEWARE



출판기념회 단체사진

## 『불멸의 테이블』 출판기념회 두 문화, 한 식탁 위에 마주 앉다

오영민 | SKS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부대표

2026년 4월 6일, 자카르타 멘렙에 위치한 Tugu Kunstkring Paleis에서 시인 사공경의 시집 『불멸의 테이블』 인도네시아어판 출판기념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한인니문화연구원과 Tugu Group Heritage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가올 자카르타 500년에 바치는 하나의 헌시로, 문학을 통한 문화외교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신간 소개를 넘어, 시인이 35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오며 쌓아온 시간과 애정, 그리고 두 문화를 연결하려는 사유가 응축된 하나의 장면이었다.

### 시인이 돌아온 자리, 공간이 응답하다

사공경 시인에게 이번 출판기념회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외사랑’이 마침내 응답을 얻는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 드나들던 Tugu Kunstkring Paleis는 더 이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기억과 내면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었다.

식민지 시절의 흔적과 예술, 시간이 겹겹이 쌓인 이 공간은 『불멸의 테이블』이 태어난 장소적 원형이기도 하다. 『불멸의 테이블』은 단순한 시집

이 아니다. 순다 끌라빠, 꼬따 뚜아, 카페 바타비아, 국립박물관, 뚜구 그룹 헤리티지, 오랑 꼬레아 장운원 등 자카르타의 공간과 사람들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세월과 기억의 흔적 위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를 마주하게 한다.

행사에서 준비된 다과와 장식, 선물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문화와 감각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시’였다.

### 문화가 만나는 방식 - 음악, 몸, 그리고 시

행사의 시작은 앙끌롱 연주였다. 서로 다른 음이 모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이 악기는 이번 행사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어진 한국 전통무용 ‘정중동’은 고요 속 움직임이라는 미학으로 또 하나의 문화적 언어를 펼쳤다.

마지막을 장식한 사만(Saman)은 몸과 리듬만으로 공동체의 호흡을 완성한 춤이었다. 그 장면은 『불멸의 테이블』이 펼쳐놓은 풍경과 닮아 있었다. 서로 다른 삶과 시간이 하나의 리듬으로 맞닿는 순간, 우리가 결국 한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였다.

### 시가 열어놓은 식탁 - 낭송과 해설의 깊이

이날 행사의 중심은 단연 시 낭송이었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불멸의 테이블」을 시작으로, 「바타비아의 오래된 항구」, 「수디르만 장군」, 「양철성」, 「바틱」, 그리고 마지막 「자카르타 연가」까지 이어진 낭송은 하나의 문화적 체험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각기 다른 목소리로 낭송되었다는 점이다. 해양박물관 관장이 순다 끌라빠를 노래하고, 이슬람대학교 교수, 한국어 교수와 문화 인사들이 시를 나누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적 풍경이었다.

시인은 작품마다 직접 해설을 덧붙이며,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맥락을 풀어내어 시를 ‘살아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 사람들, 그리고 시간의 밀도

이날 행사에는 정부, 외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복을 입은 한인니문화연구원 팀리더들과 바틱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진 풍경은 두 문화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관계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이라는 점이다. 35년의 시간 속에서 쌓여온 인연이 이날 하나의 장면으로 드러났다. 이날의 만남은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

### 문학이 잇는 마음의 외교

사공경 시인은 환영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교는 제도와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문학은 마음과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이날의 출판기념회는 공식 외교의 형식을 넘어 깊은 교감을 만들어낸 자리였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기억을 지닌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사공경 시인



(좌)보건복지부 차관 Ibu. Veronika Tan  
(우) Menara Syariah, PT INARE 대표 Harianto Solichin



사공경 원장 출판기념회의 대미를 장식한 사만가요팀(Saman Gayo Team)

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불멸의 테이블』이 말하는 ‘불멸’의 의미였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강원준 총영사, 자카르타 주정부 문화청 부청장(Disbud DKI Jakarta) Ibu Retno, 그리고 Menara Syariah, PT INARE 대표 Harianto Solichin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였다. 문학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방식의 외교라는 점이였다.

### 끝이 아닌 시작 - 하나의 테이블, 또 다른 여정을 향하여

행사의 마지막, 시인은 새로운 계획을 밝혔다. 이 도시를 다시 걸으며, 『잘란 잘란 자카르타』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써 나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시인은 “이것은 결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새로운 여정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우리는 왜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시인의 꿈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준 Tugu Kunstkring Paleis, 그리고 그 무대를 빛낸 시인 사공경. 두 거장이 만들어낸 만남에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좌)President University Jababeka 설립자, Pak S.D. Darmono



강원준 총영사

- 공동주최: 《한인니문화연구원》, 《Tugu그룹 헤리티지》
- 후원: 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 (KOSA), 한-인니산림협력센터, PT Fin Centerindo Dua, Saint James Tableware, Yewon Res., Hanok Res., Noodle King



#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서울 도봉구협의회, 평화 통일 플랫폼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제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이정휴)는 서울 도봉구청에서 민주평통 서울시 도봉구협의회(회장 오연중)와 평화 통일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정휴 회장을 비롯해 정제의 간사, 이동현 부간사, 박주상 자문위원 등 동남아남부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봉구협의회 측에서도 오연중 회장을 포함한 간사 및 임원진 1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 및 지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역량 강화 및 교류 활성화 ▲평화 통일 관련 정보 공유 ▲통일 강연·세미나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 협력 ▲워크숍 및 문화탐방 추진 ▲지역 현안 정보 교환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축제 교류 등이 포함됐다.

동남아남부협의회는 그동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과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휴 회장은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양 협의회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긴밀히 협력하고,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연중 도봉구협의회장 역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화답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양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교환하며 상호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협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의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호에 이어

## 약초꾼 이야기 4화 - 할머니(1)



유복한 집에 외동딸로 태어난 나는 중학교 시절까지 부족함 없이 학교를 다녔다. 일제 강점기 부모님을 잃고 삼촌에게 맡겨져 허드렛일을 도우며 지내다, 광복 후 3년이 지난 19살이 되던 해에 삼촌의 고향 동네 지인으로부터 중매가 들어와 산골 마을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상대가 약초꾼이라는 말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내 코가 석 자라 삼촌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심성도 착하고 얼굴도 환하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약초꾼이라는 말만 듣고 낯선 설악산으로 오게 되었다.

문제는 몇 년 살아 보니, 8살 많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한 것이었다. 어렵게 구한 약초들을 장터에 내다놓고 받은 팔고 받은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 아닌가. 술 한 잔 받아먹고 좋아서 헬렐레~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속이 터진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설악산. 추위를 많이 타는 데다 부모님을 잃고 난 후로는 속에서 신물 올라오는 병을 얻었고, 악몽을 자주 꾸었다. 자다 소리치는 나를 보고 남편은 산조인·용안육·당귀·계피를 수년간 달여주었다. 그리고 철마다 자라나는 나물과 버섯들, 귀한 약초들을 접한 덕분인지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편해지고 안정되어갔다.

### ▶ 산조인(酸棗仁) · 용안육(龍眼肉) · 당귀(當歸) · 계피(桂皮)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대표적인 약재 조합으로 악몽·야간 불안·만성 수면장애에 위 약재를 함께 달여 복용한다.

- 산조인: 심장의 열을 내리고 불면·불안 완화, 수면의 질 향상
- 용안육: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집중력 강화, 빈혈 개선
- 당귀: 혈액순환 촉진, 자궁 기능 강화, 여성 냉증 완화
- 계피: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 개선, 소화 촉진

1957년 늦봄, 10년 가까이 없던 입덧이 생겼다. 임신을 한 것이다.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한걸음에 창고로 들어가 그동안 묵혀왔던 몸에 좋다는 건 모두 꺼내서 가마솥에 넣고, 밤이 새도록 부엌 장작불 앞에서 지키기를 자처했다.

"고 녀석 참 푹푹하구나. 한번 알려준 것은 까먹는 법이 없으니, 여기 빨간 빛깔에 봉화처럼 생긴 것이 뭐라고 했지?"



서상명 | 미르한의원 원장

"치자예요. 심장에 열이 많아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을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멍이 든 곳에 치자를 빵아 밀가루와 섞어 환부에 붙이면 어혈도 빠르게 빠진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기억하니?"

"건 제 이름과 같은 황금이라는 약재잖아요. 황금은 폐와 심장의 열을 내려주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기침 가래가 심할 때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기억해요. 그리고 조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들에게 백출과 함께 쓰면 태아가 안정을 취하여 조산을 막는 약재로도 쓰인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나?"

금이는 묻는 약재들을 막힘없이 척척박사처럼 대답해 나갔다. 나의 고개는 절로 끄덕여지면서 어쩌나 기특하던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장하다 금아. 무엇이든 배워 놓으면 나중에 써먹는 법이란다. 지금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훗날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될 테니 두고 보거라."

금이는 내 눈을 뻔히 쳐다보더니 "할머니 눈동자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라고 말했다. 웃긴 얘기도 아닌데 순간 웃음이 나온다. 이런 게 '손주 보는 재미'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뜻인가 보다.

금이가 6살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형한테만 새옷을 사주고 자기는 물려받아 입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 한 것이 내 눈에 띄었다. 생각이 복잡해졌다. 비싼 옷을 두 벌이나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애가 마음에 상처 받는 것도 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새옷을 사주고 싶건만... 금이를 불러다 물었다.

"너도 새옷 갖고 싶니?"

금이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렸다.

"이 할미 눈 쳐다보고 얘기해 보려무나."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약재 창고로 들어가 꿀에 재운 대추를 꺼내 금이 입에 넣어주었다. 금이는 어느새 웃으며 내게 안긴다.

'그래, 둘째라 얼마나 서운하니. 내 새끼, 내 새끼.'

애미가 처음 설악산에 왔을 때 혈색이 창백하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기운이 없어 숨이 고르지 못하니, 약초를 달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약초책을 참고하여 심장과 소화기관을 보하는 산약·대추·하수오·감초·황기를 달여 먹이기 시작했다.



### 심신 안정 및 수면 유도



산조인(불면, 불안 완화, 심장 열 내림)



용안육(기억력, 집중력 강화, 심신 안정)



당귀(혈액순환, 자궁 기능 강화)



계피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 개선)

## 예술가가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학생기자 강현준 | GMIS Jakarta G10



〈The Nature' s First Design〉

예술이란 의도와 뜻을 가진 하나의 언어이다. 인간은 작품을 볼 때 겉모습에 먼저 집중하지만, 그 안에는 작가의 선택과 의도가 담겨 있다. 나는 작은 요소 하나도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어 예술가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같은 작품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은 예술에 해석과 이해의 과정이 필수임을 증명해 준다. 이 기사에서는 상징, 색, 구도, 자연미, 그리고 비평 과정을 통해 예술가들이 어떻게 의미를 불어넣는지를 알아본다.

첫째로, 예술에서 사물은 단순한 그림에 생기를 넣어주는 장식이 아니라 상징으로 사용된다. 하나의 물건은 기능을 넘어서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꽃은 상황에 따라 기쁨이나 희망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상실이나 이별을 나타낼 수도 있다. 같은 사물이라도 맥락과 배치, 그리고 관객의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에 예술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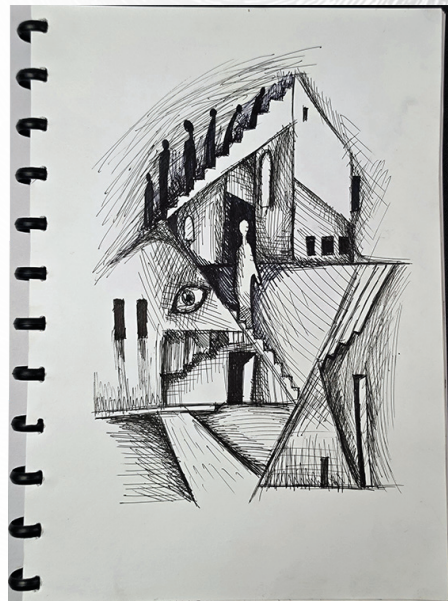
색은 작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색은 관객이 작품을 보는 순간 바로 감정에 이입

하게 한다. 빨강과 주황 같은 따뜻한 색은 에너지와 긴장감을, 파랑과 초록 같은 차가운 색은 차분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색의 대비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유사한 색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색의 선택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전략이다.

**구도와 배치는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중심 요소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비대칭적인 구도는 긴장감을, 균형 잡힌 구도는 안정감을 형성한다. 여백은 시선을 정리해 주고 강조를 돕는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미(aesthetic principle)의 원리인 균형, 대비, 강조, 리듬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원리들은 서로 결합해 작품 전체의 통일성과 방향성을 만든다.

**또한 미술 비평 과정은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다.**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묘사, 요소의 쓰임새를 보는 분석, 의미를 정리하는 해석, 그리고 효과를 평가하는 판단의 4단계를 거치면 작품의 뜻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나의 작품인 **〈The Nature's First Design〉**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중심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기가 위치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러난다. 아기의 형태는 황금 비율에 따라 배치되어 생명이 자연의 구조 속에서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주변의 꽃과 색들은 생



명과 성장의 상징이며, 밝은 꽃과 어두운 배경의 대비는 아기를 더욱 강조한다. 또한 구석의 눈 이미지는 자연이 생명을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 **〈Observed Ascent〉** 는 보다 추상적이다. 건물과 계단, 인물이 결합된 이 그림은 관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계단을 오르는 인물들은 성장이나 반복되는 사회적 구조를 상징할 수 있다. 거친 선과 강한 명암 대비, 비대칭 구도는 안정감보다는 긴장감과 리듬을 강조한다. 이 작품들 역시 비평 과정을 통해 묘사, 분석, 해석, 판단의 단계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결론적으로 **예술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같은 작품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상징, 색, 구도, 자연미를 통해 분석하면 예술가들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술은 단순히 시각적 감상에 그치지 않고, 작품 속 요소를 통해 의미를 읽고 해석을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관객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예술은 더 깊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 미래를 이끄는 융합인재의 힘찬 첫걸음, JIKS 부설 영재교육센터 개강식

- 4월 11일, 2026학년도 영재학급 개강식 개최... 본교 및 외부 국제학교 학생 20명 선발
- 모국어와 독서 기반 위에 수학·과학·SW 창의성 더한 ‘글로벌 K-영재’ 육성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문성) 부설 영재교육센터는 지난 4월 11일(토), 본교에서 2026학년도 영재학급의 시작을 알리는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 학교 벽 허문 ‘글로벌 학습 공동체’... 20명의 예비 과학자 선발

이번 영재학급에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JIKS 재학생 9명과 자카르타 내 타 국제학교 재학생 11명 등 총 2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이는 JIKS가 교내를 넘어 지역 사회의 글로벌 인재들을 아우르는 영재 교육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한국어와 독서 역량이 창의성의 뿌리”... 인재상 정립

이날 격려사에서 이문성 교장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조건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강조했다. 이 교장은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은 한국어(모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독서 교육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며, “언어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학·과학적 창의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자카르타한국학교가 지향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과  
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 ■ 수학·과학·SW 균형 잡힌 ‘미래형 융합 커리큘럼’ 실시

2026학년도 영재교육과정은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발맞춰 수학과 과학은 물론, 소  
프트웨어(SW) 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하여 SW 수업을 차별화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1년의 로드맵 공유

개회사와 지도 강사 소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연간 운영 계획 및 연말 산출물 발표  
회 안내를 포함한 상세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어졌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질의응답 시간  
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며,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1년간의 여정을 함께  
설계했다.

JIKS 영재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전문적인 지도 인력을 통해 학생  
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K-교육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새로운 비전, 더 큰 도약의 시작” JIKS,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성료

- ‘기초학력·독서·정체성’ 기반 위에 ‘글로벌·디지털’ 역량 입힌 미래 교육 청사진 제시
- 제15대 이문성 교장 부임 후 첫 비전 선포... ‘글로벌 K-교육’의 표준으로 도약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에서 새로운 교육 비전을 발표하는 이문성 교장.



설명회에서 2026학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영어 immersion 프로그램 안내를 경청하고 있는 JIKS 학부모들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문성)는 지난 3월 26일(목), 본교 강당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의 새로운 교육 비전과 4대 교육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15대 이문성 교장 부임 이후 새롭게 정립된 학교 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첫 자리로, 단순한 일정 안내를 넘어 JIKS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 "잘하는 것은 더 깊게, 필요한 것은 더 과감하게"

JIKS는 이번 설명회에서 “미래역량을 기르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K-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학년도 교육과정의 핵심 기초를 공개했다.

학교 측은 기존 교육의 강점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 요구에 맞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2026학년도 운영의 핵심인 4대 교육목표 >

1. 기초학력과 독서, SW·AI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균형 있게 기른다.
2. 영어 몰입 환경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3. 초·중·고 연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진학 교육을 실현한다.
4. 학생 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구축한다.

## ■ 기본과 미래를 동시에 잡는 '하이브리드형 인재' 양성

초등과정에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교육과 탄탄한 기초학력 기반 위에 디지털 기반 탐구 학습을 병행한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찾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재외한국학교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한 '영어 몰입 환경'을 대폭 강화한다. 2026학년도부터는 English Zone, English Day, Friday English Lab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

## ■ '글로벌 디지털 드림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체계적 성장 관리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부분은 초등부터 고등까지 연계되는 진로 시스템이다.

JIKS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글로벌 디지털 드림 포트폴리오'를 운영, 초등에서의 경험이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설계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문성 교장은 "자카르타한국학교는 한민족의 뿌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소통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글로벌 K-교육'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성취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들과 교육 철학을 공유하며, JIKS가 정체성과 미래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독보적인 글로벌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JIKS

# JIKS, 자기주도학습 '순공120' 프로젝트로 형설지공의 불을 밝히다!

- 4월 1일, 제1과학실에서 '순공120' 발대식 개최
- 학기당 120시간 순수 공부 시간 달성 목표... 미래 역량 강화 기대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문성)는 4월 1일(수), 본교 제1과학실에서 7~1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인 '순공120' 프로젝트의 공식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 '순공120', 학생 스스로 만드는 변화의 시작

'순공120'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계획을 바탕으로 학기당 순수 공부 시간 120시간 도달을 목표로 하는 JIKS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

래 역량을 기르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벌 K-교육'이라는 학교의 비전에 발맞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1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 전용 '자기주도학습실'이 제공된다. 또한,



2026년 4월 1일 '순공120' 발대식, 자카르타한국학교 제1과학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중등 전 교원이 지도 교사 인력풀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 "JIKS인의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이날 발대식에서 이문성 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순공120 프로젝트가 단순히 공부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JIKS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진정한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와 기대를 전했다.

■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와 지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기당 120시간 이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활동증명서 발급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보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IKS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자기주도학습 운영을 지속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 JIKS 초등, ‘English Day’로 글로벌 소통의 문 활짝 열다!

- 매월 마지막 금요일, 등굣길부터 교실까지 ‘영어로 소통하는 학교’ 조성
- 일상 속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통해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 강화 기대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문성) 초등과정은 지난 4월 24일(금), 학생들의 실용 영어 능력 향상과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환경을 위한 ‘English Day’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 일상 속에 스며드는 영어, “공부가 아닌 소통으로”

이번 ‘English Day’는 영어를 단순한 학습 과목이 아닌, 일상적인 소통의 도구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날 JIKS 초등과정 1~6학년 학생들과 전 교직원은 등굣길 인사부터 복도, 교무실 등 학교 전 공간에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강제적인 사용보다는 자연스러운 노출과 경험에 방점을 두었다. 한국어 교과 수업 시간을 제외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생활지도 표현을 영어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 매달 전 교직원 참여로 ‘학습 공동체’ 실현

학생들은 필수적인 표현을 상황에 맞춰 직접 구사하며 자신감을 얻었으며, 교사들 또한 적극적인 안내와 격려로 이에 화답했다.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전체가 하나의 ‘영어 사용 공동체(English-Speaking Community)’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JIKS는 ‘English Day’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영어 단어 퀴즈 배틀 ▲질문 카드 활동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운영 주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English Zone’ 조성 등 체계적 글로벌 교육 환경 구축

한편, JIKS는 2026학년도 역점 사업으로 교내 ‘English Zone’을 별도 조성하고 주별 핵심 표현(Key Expressions)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영어 사용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자연스러운 영어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이문성 교장은 “English Day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도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실 있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오월의 길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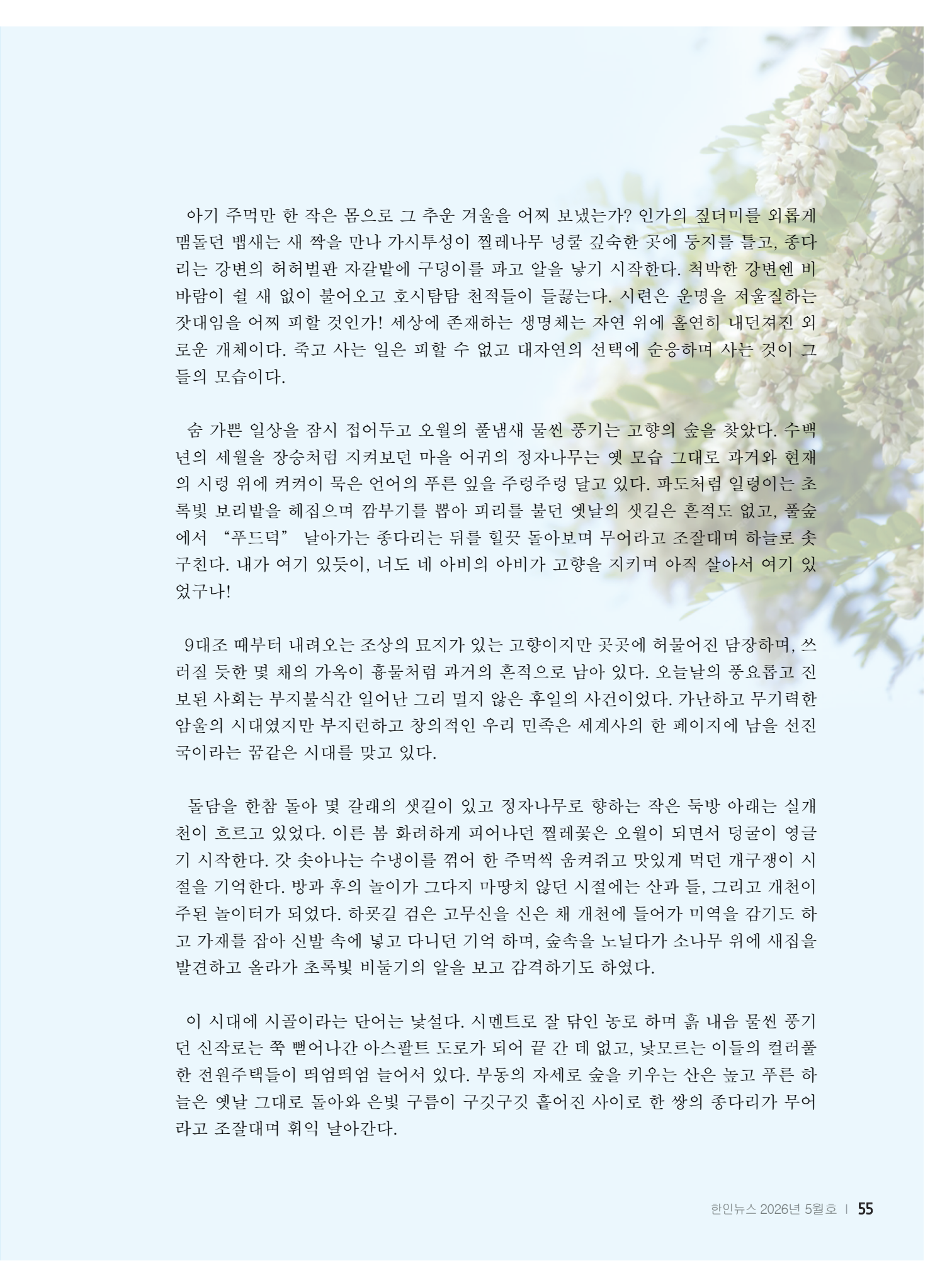
김준규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봄비는 사납지도 격하지도 않게 여린 잎을 다스리며 대지 위에 스며들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지상의 형상을 닮아가며 흐르다가 역순환의 처절한 울림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쁨을 선사한다. 미운 겨울은 손절하며 떠나보내는 계절이고, 설레는 봄은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인 듯 팔을 벌려 맞이하는 계절이다.

불현듯 불어오는 봄바람에 대지는 감각의 눈을 뜨고 포근한 가슴으로 새봄을 끌어안는다. 수줍던 기다림은 열화처럼 타오르다 폭죽을 터뜨리듯 앞다투어 만발하던 꽃잎이 사월의 남풍에 사르르 녹아들면,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깬 새순들은 연록의 물감으로 천지를 덧칠하며 초록의 계절을 몰고 온다.

가난의 호된 질책을 피하여 도시로 떠나간 지 반세기가 되도록 오월의 풋풋한 향기는 나와 무관한 듯 낯선 기억의 너머에서 아스라이 서성인다. 흙 내음이 물씬 풍기는 그 시절, 비포장의 신작로는 아래로 한참을 가면 읍내가 닿고 위로 한참을 가면 해마다 봄 소풍을 떠나 찾아가는 절, 석암사가 있다.

5월이 되면 신작로 양쪽에 흐드러진 아카시아 꽃잎은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웅웅대는 꿀벌들의 대향연이 펼쳐진다. 이맘때면 사월 초과일을 맞이한 석암사 스님들의 흰색 고무신 신은 발걸음은 숲속의 꽃무늬처럼 가뿐하고, 연등 행사에 분주한 회색 적삼 입은 보살들의 얼굴에선 웃음꽃이 만발한다.



아기 주먹만 한 작은 몸으로 그 추운 겨울을 어찌 보냈는가? 인가의 짙더미를 외롭게 맴돌던 뱀새는 새 짝을 만나 가시투성이 찢레나무 넝쿨 깊숙한 곳에 등지를 틀고, 종다리는 강변의 허허벌판 자갈밭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기 시작한다. 척박한 강변엔 비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오고 호시탐탐 천적들이 들끓는다. 시련은 운명을 저울질하는 잣대임을 어찌 피할 것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자연 위에 홀연히 내던져진 외로운 개체이다. 죽고 사는 일은 피할 수 없고 대자연의 선택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숨 가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오월의 풀냄새 물씬 풍기는 고향의 숲을 찾았다. 수백년의 세월을 장승처럼 지켜보던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는 옛 모습 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시렁 위에 커켜이 묵은 언어의 푸른 잎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초록빛 보리밭을 헤집으며 감부기를 뽑아 피리를 불던 옛날의 셋길은 흔적도 없고, 풀숲에서 “푸드덕” 날아가는 종다리는 뒤를 힐끗 돌아보며 무어라고 조잘대며 하늘로 솟구친다. 내가 여기 있듯이, 너도 네 아비의 아비가 고향을 지키며 아직 살아서 여기 있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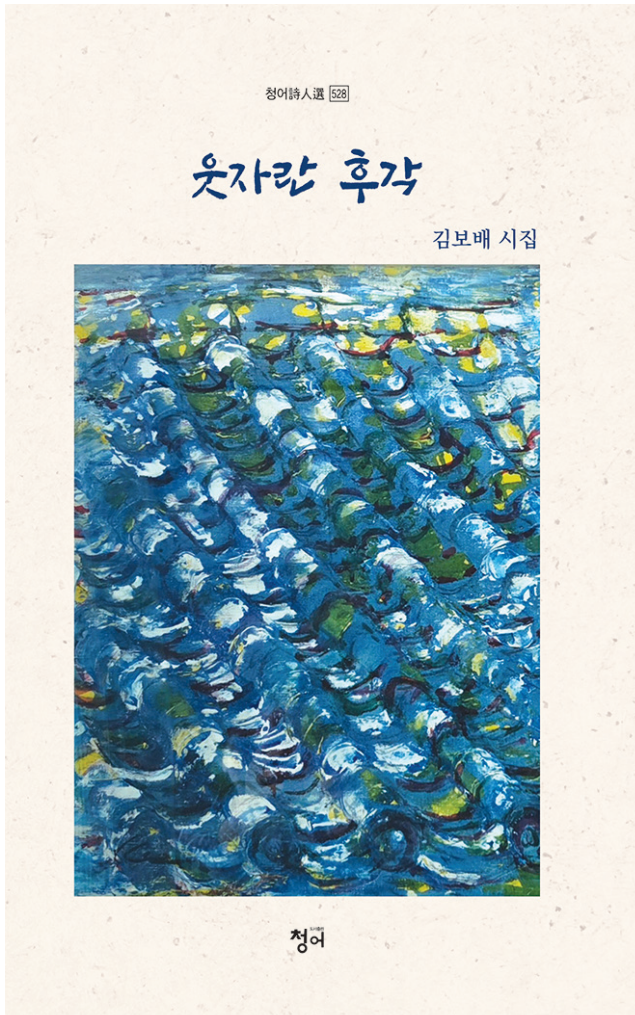
9대조 때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고향이지만 곳곳에 허물어진 담장하며, 쓰러질 듯한 몇 채의 가옥이 흉물처럼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의 풍요롭고 진보된 사회는 부지불식간 일어난 그리 멀지 않은 후일의 사건이었다. 가난하고 무기력한 암울의 시대였지만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에 남은 선진국이라는 꿈같은 시대를 맞고 있다.

돌담을 한참 돌아 몇 갈래의 셋길이 있고 정자나무로 향하는 작은 독방 아래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이른 봄 화려하게 피어나던 찢레꽃은 오월이 되면서 덩굴이 영글기 시작한다. 갓 솟아나는 수냉이를 꺾어 한 주먹씩 움켜쥐고 맛있게 먹던 개구쟁이 시절을 기억한다. 방과 후의 놀이가 그다지 마땅치 않던 시절에는 산과 들, 그리고 개천이 주된 놀이터가 되었다. 하룻길 검은 고무신을 신은 채 개천에 들어가 미역을 감기도 하고 가재를 잡아 신발 속에 넣고 다니던 기억 하며, 숲속을 노닐다가 소나무 위에 새집을 발견하고 올라가 초록빛 비둘기의 알을 보고 감격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에 시골이라는 단어는 낯설다. 시멘트로 잘 닦인 농로 하며 흙 내음 물씬 풍기던 신작로는 쪽 뻗어나간 아스팔트 도로가 되어 끝 간 데 없고, 낯모르는 이들의 킬러푼한 전원주택들이 띄엄띄엄 늘어서 있다. 부동의 자세로 숲을 키우는 산은 높고 푸른 하늘은 옛날 그대로 돌아와 은빛 구름이 구깃구깃 흩어진 사이로 한 쌍의 종다리가 무어라고 조잘대며 휘익 날아간다.

# 김보배 시집 <웃자란 후각>

기억의 문 뒤에서 걸어 올린 감각의 서사



## ■ 내적 수련으로 빚어낸 개성적 시 형식

박동규(서울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는 김보배 시인의 시편들이 내적으로 깊은 수련을 거친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고 평가한다. 주제의 선명성뿐만 아니라 그만이 가진 개성적인 시 정신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시 「문안」에서 보여주듯 비어 있는 집의 이미지와 다의적인 의미 층을 조화시켜 시인의 감성적 세계를 세밀하게 드러낸다.

## ■ 자연을 단시로 풀어내는 맑은 상상력

김준규 시인은 김보배를 자연에서 얻은 소재를 긴 설명 대신 절제된 단시로 풀어내는 특별한 시인으로 정의한다. 선생의 상상력은 못난 조개 하나에서 바다를 건져 올리고, 창가의 작은 먼지조차 별처럼 빛나는 시의 소재로 변모시킨다. 특히 시 「어머니에게」에 등장하는 '오랜 향'은 어머

김보배 시인의 시편들은 내적으로 깊은 수련을 거친 언어로 채워져 있다. 주제의 선명성 또한 그만의 개성적 시 정신과 시 형식을 갖추었다. 특히 주목해 볼 점은 시 「문안」처럼 비워진 집의 이미지와 문안이 가지는 다의적 의미 층이 잘 어울려 그의 감성적 세계를 세밀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심상》 신인상 심사평  
—박동규(서울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김보배 시인은 자연에서 들려주는 소재거리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시로 풀어내는 특별한 시인이다. “반짝이는 그날의 웃음 소리/ 곳곳한 햇빛으로/ 가지마다 돌아나고(「산수유 피면」)” 청보리밭에 빗질하듯 내리는 햇살 속에서 새봄의 기운을 발견한다. 선생의 상상력은 못난 조개 하나를 보듬으면서 바다를 건지기도 하고, 창가에 빛이 들면 드러나는 작은 먼지조차도 별처럼 빛나는 시의 소재가 된다. “나는 등 거친 나무 아래/ 당신이 내려놓은/ 마른 솔잎 세며/ 있고 있었던 오랜 향에/ 눈 매워/ 하늘 바라봅니다.(「어머니에게」)” 오랜 향은 어머니의 앞치마에서 나던 정겨운 향기일 수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일 수도 있다. 김보배 선생님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한세월을 보듬으며 노년을 살고 있다. 선생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문인협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현지 매체에 작품을 기고 하며 그간 정성껏 모은 시를 발표하게 되었다. 시집 『웃자란 후각』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김준규(시인)



값 13,000원  
ISBN 979-11-6855-443-6(03810)

니의 정겨운 앞치마 향기이자 절실한 그리움의 투영이다. 인도네시아 문인협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정성껏 모은 이번 시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 한 세월을 보듬어 온 시인의 따뜻한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다.

## ■ 기억과 상실을 긍정하는 삶의 태도

이번 시집 『웃자란 후각』은 개인적 기억을 출발점 삼아 가족, 자연, 존재의 문제를 섬세하게 탐구한다. 시인은 시력이 흐려지는 신체적 변화조차 “어차피 다 볼 수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

— 기억의 창고: 일상적인 언어 배치를 넘어 “기억의 문 뒤”에 쌓인 장면들을 시인만의 특별한 조어법으로 끌어낸다.

— 상실의 성찰: 빠진 이와 늙어가는 부모를 겹쳐 보면서도 상실을 단순한 슬픔에 가두지 않고, 그리움의 한 조각으로 품어 안는다.

— 삶은 도돌이표: “도돌이표 앞에 선 한 사람”을 찾는 과정(「암중모색」)을 통해 삶의 순환을 강렬한 직관의 언어로 제시한다.

결국 김보배의 시 세계는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젊은 시절 타국에서 보낸 시간과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시인은 “육신의 덧을 건너 다시 새날”을 맞이하는 구도자적인 자세로 삶을 긍정하며 다시 한 발을 내딛는다.



열 두 달 식물칼럼 시즌2- 아홉 번째 이야기

# <우리는 더 나은 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We'll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권영경-

권영경 | 『식물일기』 저자



The greatest night in pop(넷플릭스 다큐)



해 비치는 곳에 놓아둔 테라리움. 다들 잘 키우고 있는지요?

자존심은 문 앞에 두고 들어오세요(Check your ego at the door) 1985년 1월 28일 밤, 이 문장이 적힌 종이 한 장이 LA 한 스튜디오 문 앞에 붙었다. 그러고는 스티비 원더, 밥 딜런, 신디 로퍼, 빌리 조엘 등 당대 최고의 팝스타 40여 명이 어깨를 맞대고 '위 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를 부른다. 그 중심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다.

이 믿기 어려운 장면은 2024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The Greatest Night in Pop)에 담겨 있다.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만든 이 노래는 발매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되었고, 수익금은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을 돕는데 쓰였다. 그리고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기다려온 영화 <마이클>(Michael)이 드디어 개봉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주말 내내 마이클 잭슨 노래를 찾아 들었다. 잭슨 파이브 시절의 'ABC'부터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Thriller'까지. 그가 남긴 수많은 명곡들

로 귀가 모처럼 호강이다.

식물칼럼에 왜 음악 이야기를 하는가?

*There's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구한다는 이 문장은, 단순한 가사를 넘어 하나의 선언처럼 들린다. 그저 음악일 뿐인데, 변화가 일고 세상이 움직이는 마법. 마이클 잭슨은 그것을 해낸 사람이었다.

나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있지 않다. 세상을 바꿀 만한 큰 목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는다. 식물을 설명하는 대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들려줄 뿐이다. 빛을 나누는 법, 자리를 비우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그런 것들 말이다.

작년 찌까랑과 땅그랑에 이어 자카르타에서도 '식물과 대화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생명 존중 특강을 진행했다. 수업 말미에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식물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놀랍게도 학년과 지역을 불문하고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아래쪽 식물들에게 해를 나눠주려고 자기 몸에 구멍을 뚫은 몬스테라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우리는 몬스테라의 구멍을 디자인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빛이 부족한 열대 우림에서 몬스테라는 잎을 완전히 채우지 않는다. 일부를 비워 두고, 그 틈으로 빛이 아래까지 흐르도록 둔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방식, 덜 채우며 숲을 오래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테라리움을 만들며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시 이끼를 심는다. 그리고 물을 조금 더한다. 처음에 아이들은 '예쁘게 꾸미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곧 알게 된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물을 많이 주면 곰팡이가 생기고,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고, 너무 많은 빛을 보면 잎이 타버린다. 한 식물이 너무 커지면 다른 식물은 상대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아이들은 그저 보게 될 것이다. 자연은 돌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구조라는 것을! 그 작은 유리병 안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조절'이라는 감정을 배운다.

세상은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이 아주 조금 이동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다.

나는 그저 식물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아이들 안에서 질문이 되고 답이 된다. 자신이 가진 빛을 어떻게 사용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서서히 밝힐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아이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작고



(우)이끼에게 쓴 사랑스러운 인아의 편지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으로.

마이클 잭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을 들으며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의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등교 전 이끼에 물을 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인사를 건네고, 편지를 써주고, 햇빛 가까이 조심스럽게 두고 간다는 여러 후기들을 들을 때 몽클해지는 이유도 내 마음이 그들에게 닿았기 때문이다. 이미 죽어서 아이가 슬퍼하니 이끼 판 매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조차 변화의 시작임을 나는 알고 있다.

더 나은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당신과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We'll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출처:  @emily.jy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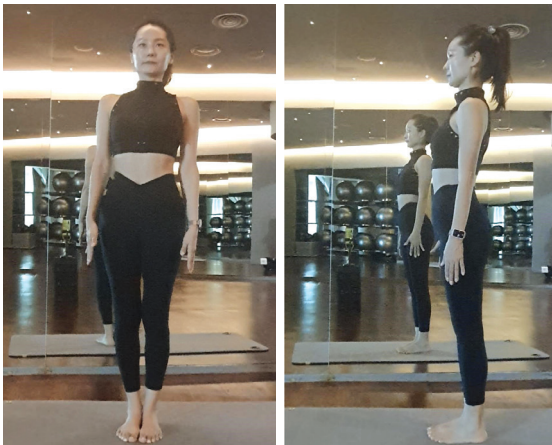
## 선자세 땅 위에서는 법, 존재를 다시 배우다

"스티라 수캄 아사남(Sthira Sukham ?sanam)"  
자세는 굳건하면서도 편안해야 한다. - 『요가 수트라』 2.46

Back to the basic 그 첫번째는 선자세이다 똑바로 선 체위는 인간특유의 것으로 직립보행한 이래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이상동안 인류는 선자세를 취한다. 그럼 '그냥 서있는 것'이 왜 수련이 될까? 현대인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산하고, 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타다사나는 그 모든 충동을 멈추고 묻는다. 지금 여기, 당신은 제대로 서 있는가?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Dasein)', 즉 '이미 거기에 있음'으로 정의했다. 요가의 언어로 풀면 타다사나다. 어딘가로 가려는 몸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존재하는 몸.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 자세가 요가의 전부를 품고 있는 이유다.

### 01 | 타다사나 Tadasana



타다사나/mountain pose/산자세

산스크리트어: Tada(타다) = 산(山) / sana(아사나) =  
자세 영어: Mountain Pose 한국어: 산 자세

**힌두 신화에서**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축 메루산(Mount Meru)은 브라흐마·비슈누·시바 삼신이 머무는 신성한 기둥이며, 하늘과 땅, 신계와 인간계를 잇는 연결점이다. 히말라야(Him?laya)는 문자 그대로 '눈(雪)의 신' 시바신의 거처이자 명상의 땅이다. 타다사나는 그 산이 되는 자세다. 흔들리지 않으나 살아있고, 고요하나 충만한 존재

**자세지침:** 맨발로 서서 발바닥의 감각을 깨운다. 발바닥의 네 지점(엄지발가락 아래 · 새끼발가락 아래 · 발꿈치 안쪽 · 발꿈치 바깥쪽)이 균등하게 바닥을 누른다. 발 아치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발목을 안정시키고, 무릎은 잠그지 않되 가볍게 활성화한다. 골반은 중립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말리지 않는다. 척추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며, 흉곽을 부드럽게 열고 견갑골을 등 아래로 내린다. 정수리는 위로 당긴다

**호흡** 들이쉬는 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발뿌리가 땅 깊이 내려앉는다. 호흡 자체가 곧 자세의 움직임이다. 응용 자세 견고하게 유지된 하체 위에서, 상체는 다양하게 피어난다. 뿌리가 깊을수록 가지는 높이 뻗을 수 있으니까.

**응용 자세** 견고하게 유지된 하체 위에서, 상체는 다양하게 피어난다. 뿌리가 깊을수록 가지는 높이 뻗을 수 있으니까.

자세	산스크리트어	핵심 작용
팔 들어올리기	Urdhva Hastāsana	어깨 신전, 흉곽 확장
깍지 끼워 위로	Urdhva Baddhāngulāsana	손목·견갑대 유연성
등 뒤 합장	Paschima Namaskārāsana	흉추 후굴, 어깨 외회전
독수리 팔	Garuda Bāhu	견갑간 근육 이완

## 02 | 우트카타사나 Utkatasana



우트카타사나/chair pose/의자자세

당신은 불편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도망치는가, 버티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호흡하는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타다사나가 존재를 가르친다면, 우트카타사나는 저항을 가르친다. 허벅지가 불타는 그 순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타파스"다. 일상이라는 수련에서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

산스크리트어: Utkata(우트카타) = 강렬한, 격렬한, 맹렬한 / Asana = 자세 영어: Chair Pose 또는 Fierce Pose (격렬한 자세) 한국어: 의자 자세 / 강한 자세

서양에서는 'Chair Pose'라 부르지만, 산스크리트어 원뜻은 '의자'와 무관하다. Utkatā는 불꽃처럼 맹렬한 힘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힌두 신화에서 번개의 신 인드라(Indra)는 하늘의 전사이자 힘의 상징이니, 우트카타사나의 타오르는 에너지는 인드라와 닮았다. 또한 고행(苦行)을 뜻하는 타파스(Tapas)와 깊이 연결된다. 한마디로 불편함을 견디고 내면의 열을 키우는 수련이다

자세 지침 발을 모으거나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구부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듯이 내려간다. 체중이 발꿈치 쪽으로 실리도록 하며,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정렬 안으로 모이지 않는다. 대퇴사두근(quadriceps)과 둔근(glutes)이 주 작용근이며, 코어가 요추를 지지한다.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도 되나 척추 길이는 유지. 팔은 귀 옆 또는 앞으로 뻗는다.

호흡 들이쉬며 척추를 길게 준비하고, 내쉬며 천천히 앉는다. 자세 유지 중 억제된 호흡은 근육 긴장을 악화시키므로, 불편한 중에도 호흡의 흐름을 놓지 않는다.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 형사소송법 (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 3. 내사(Penyelidikan)

###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출국 금지,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신원 확인,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서명한 후,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법인,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 | 내사 처리 절차 및 가이드

계획 수립	현장 활동	결과 보고	심사회의
명령서, 인원, 대상 및 예산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현장 관리, 미행, 인터뷰 및 위장 수사 등 수행	활동 내용 및 의견을 포함한 서면 보고서 작성	Gelar Perkara를 통해 수사 승격 여부 판단

### 3.8.5. 특정 활동

###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3.9.1.1. 내사 명령서

####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 3.9.1.3. 내사 대상, 목적 및 목표 결과

####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 3.9.1.7. 내사 예산

###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 3.10.2. 내사 활동

#### 3.10.3. 내사 결과

#### 3.10.4. 장애 요인

####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 (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들의 지휘,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부패척결위원회 (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 김정옥의 TMII 문화 산책 - 4

◆ 김정옥의 문화 산책 4

## 중부 자바의 향기, 중부 자바 가옥관 (Anjungan Jawa Tengah)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 개의 사원 품은 땅',  
중부 자바(Jawa Tengah)로  
떠나볼까요?

Central Java  
(Jawa Tengah)  
Yogya • Koya

주도: 스마랑 / 29개 군, 6개 시로 구성

1974년에 세워진 이곳은  
중부 자바의 문화와 관광을 전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1974.12.22 건립 / TMII 내 위치

이 아름다운 야외 무대가 바로  
'오조 두메(Ojo Dumeh)'입니다.  
이곳에는 돌로 만든 마카라  
건물이 함께 있죠.

#오조두메 의미: 교만하지 마라 / 야외 행사 공간

여기서는 자바 문화의 정수인  
그림자 인형극 '와양 꼴릿'이  
밤새도록 펼쳐진답니다.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지요!

#와양꼴릿 밤샘 공연 / 500~1,000명 수용 가능

세계 최대 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와  
3m 높이의 불상이 있는 '문돛 사원'의  
복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의 힌두  
사원인 '프람바난'의 아름다움도  
놓치지 마세요!

바퀴가 4개인 '안동'은  
옛 귀족들이 타던 격식 있는 마차예요.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바인의 검손과 화목의 가치를  
TMII 중부 자와 가옥관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검손 #환대 #화목  
(with elegant seal)

# 2026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2026.1.1 ~ 2026.4.29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30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PT. KORINDO GROUP	150,000,000
3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0
4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50,000,000
5	명예고문	정필립	PT.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0
6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75,000,000
7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75,000,000
8	고문	이강현	PT. HYUNDAI MOTOR ASIA PACIFIC HEADQUARTERS	75,000,000
9	고문	이기홍	PT. TIMUR SATRIA PERKASA	75,000,000
10	수석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50,000,000
11	수석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150,000,000
12	수석부회장	이지완	PT. JIN YOUNG	150,000,000
13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5,000,000
14	부회장	곽상혁	PT. KODECO ENERGY CO LTD	75,000,000
15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75,000,000
16	부회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75,000,000
17	부회장	김재홍	PT. DAE IN TECH INDONESIA	75,000,000
18	부회장	승범수	PT. TSE GROUP	75,000,000
19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75,000,000
20	부회장	이승수	PT. SINYOUNG ABADI	75,000,000
21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75,000,000
22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75,000,000
23	부회장	최지훈	PT. TIGA WIJAYA SUKSES	75,000,000
24	자문위원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20,000,000
25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000,000
26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000,000
27	자문위원	김재훈	PT. BNG AKUNTAN INDONESIA	20,000,000
28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20,000,000
29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000,000
30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000,000
31	자문위원	안연진	PT. DEKO KOIN	20,000,000
32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000,000
33	이 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5,000,000
34	이 사	강대현	PT. INKOR MARINE SERVICE	15,000,000
35	이 사	강형구	PT. IBS INSURANCE BROKING SERVICE	15,000,000
36	이 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30,000,000
37	이 사	김일태	PT.CPL (OROM CONSULTING)	15,000,000
38	이 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15,000,000
39	이 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5,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40	이 사	박남형	PT. APLUS LOGISTIK	15,000,000
41	이 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5,000,000
42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5,000,000
43	이 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5,000,000
44	이 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5,000,000
45	이 사	송영한	PT. KOFORM INDONESIA	15,000,000
46	이 사	송진은	PT. KMK GROUP	15,000,000
47	이 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
48	이 사	안선근	PT. U.I.N UNIVERSITY	15,000,000
49	이 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5,000,000
50	이 사	양호정	PT. KISWIRE INDONESIA	15,000,000
51	이 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5,000,000
52	이 사	우태규	PT.BIMARUNA JAYA	15,000,000
53	이 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5,000,000
54	이 사	이상현	PT. AIDA INTERNATIONAL	15,000,000
55	이 사	이성훈	PT.KORINDO HEAVY INDUSTRY	15,000,000
56	이 사	원은재	PT. ACCESS MOBILE INDONESIA	15,000,000
57	이 사	장영관	PT. LAYCO	15,000,000
58	이 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5,000,000
59	이 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5,000,000
60	이 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5,000,000
61	사무총장	임성필	PT. LSP INDONESIA	15,000,000

## 2026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납부 명단

기준: 입금순

번호	성 명	금액(IDR)	납입연도
1	조선희	500,000	2026
2	최석일	500,000	2026
3	김담빛	500,000	2026
4	오정민	500,000	2026
5	박수연	500,000	2026
6	오인병	500,000	2026
7	최인실	500,000	2026
8	허소영	500,000	2026
9	박정민	500,000	2026
10	최지은	500,000	2026
11	김지윤	500,000	2026
12	황유미	500,000	2026
13	김규리	500,000	2026

번호	성 명	금액(IDR)	납입연도
14	김윤진	500,000	2026
15	이희경	500,000	2026
16	박재걸	500,000	2026
17	이지선	500,000	2026
18	김윤영	500,000	2026
19	박선이	500,000	2026
20	배진철	500,000	2026
21	배산목	500,000	2026
22	류정화	500,000	2026
23	이지선	500,000	2026
24	이지선	500,000	2026
25	영돈준	500,000	2026
26	이지선	500,000	2026

## 2026 안인외관 건립기금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000,000

## 2026 안인뉴스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고문	김준규	CIPTA ORION METAL	50,000,000

제30회 세계 한국어 응변 대회 대표 연사 출전을 위한

# 제24회 인도네시아 한국어 응변 대회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기념

세계 30개국 K-스피치 명사들  
한국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

일시  
2026년 5월 9일(토) 오전 9:00

장소  
 **KOREA 360**  
 KOREA 360, Lotte Mall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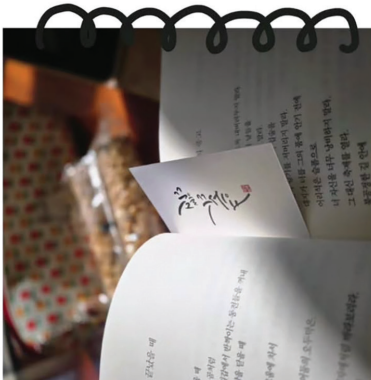
### 주제

- 한국어 소통과 세계 평화(아래 소주제 중 택1)
- \* 한국어 지구촌 보급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제언
  - \* 세종 정신과 한글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언
  - \* 한반도 및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제언
  - \*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언
  - \* AI 시대, 인간성 회복과 가치수호를 위한 제언
  - \* K-컬처 시대의 한류 문화 및 경제 협력 제언
- ※ 응변의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영상, 소품 사용 가능

### 대회개요

- 참가자 : 개인 또는 그룹.  
 절차 : 스크립트(Word/PDF)와 Speech Video를 이메일 kspeechind@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마감 시간 : 2026년 4월 4일.  
 연설 시간: 개인 - 발표시간 약 5분  
 소그룹 - 최대 3명 발표시간 약 5분  
 대그룹 - 20명 이상 발표시간 약 5분
- 수상내역  
 대상:재외동포1명, 재인도네시아 1명(상장 및 장학금)  
 1위 :참가자중 2명  
 2위:참가자중 3명(상장 및 장학금)

# 브런치 필사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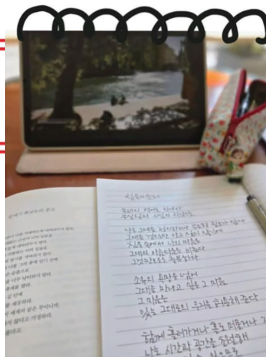


글씨쓰기 좋아하는분  
누구나

각자 좋아하는 채, 글  
자유 필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자유(그때그때  
Cafe 달라요^^)



꿈캘리 아카데미

0812 9249 0707

TALK oso321827

수업이 아닌 소규모 동아리입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주세요^^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K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1540

하나유치원	844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TK Golf Academy	0811 1377 720/81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찌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뽕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뿌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입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하나마트	8459 0064
Q MARKET(구 한일마트)	7212 0299
한일마트(땅그랑)	0813 1620 0225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 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Bornga)	739 6229
본가(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본가(Wolter Monginsidi)	0811 1880 826
본가(Blok M)	0811 9896 897
본가(Kelapa Gading)	0812 1989 7004
본가(Lippo Mall Puri)	0811 9312 868
본가(Gading Serpong)	0813 8719 1373
본가(Cikarang)	0813 8723 0639
본가(PIK)	0858 8163 0122
본가(Central Park)	0811 8000 3637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북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식당(Saemaoul Sikdang)	
새마을식당(PIK)	0811 9000 1051
새마을식당(SCBD)	0859 7257 4412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	0852 1506 12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 4007 7256
아랑진사갈비	0857 8263 7072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 (SCBD)	021 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2 1372 2793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포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투어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가람투어 & 컨설팅 021 5573 1236  
 0821 1010 3647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Fenty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TK Golf Academy**

아마추어도 쉽게 이해하는 프로 레슨

KPGA, KLPGA PRO

- 제형별 맞춤형 레슨
- 불필요한 힘을 뺌, 효과적인 스윙
- 부상 없이 즐기는 골프

instagram @ta3\_kyung +62 8111377720  
 @kckim0509 +62 8111377781

위치 Gading Mas Driving Range, Kelapa Gading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웅)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갈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인재채용

-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 리콤컴퓨터 725 1606
- 컴퓨터 원 5576 5228
- 지택컴퓨터 5696 7001
-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 한비텔 8379 1144
-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 SILVER BIRD 798 1234

- BLUE BIRD 794 1234

● 하숙

-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 동지 하숙 3608 9316
-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 모나리자 8990 9570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 쉴터 하숙 726 8775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021 300 250 4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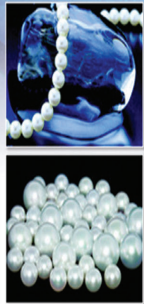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인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외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중고(김태영).....0811 1092 690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업)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류성운) 0855 1212 14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최재혁) 0811 87 0386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이동현) 0812 2336 6772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허정록) 081218645977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김 종 헌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 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공 석)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국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권 양 회	08122-8000-654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부회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정 찬 식	0815-8414-1495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 0822-1996-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7-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석 태 환	0822-8820-1223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 0411-483-6713 ]	회장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사 초청 의학 세미나

5월 가정의달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검진**  
**똑똑하게 받기**



현장 정밀  
진단 혜택  
기자재 지원

안저검사  
(망막·녹내장·백내장)  
심·뇌혈관 위험도 평가

**유병욱 교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센터장  
국제교육교류처 처장

1:1 맞춤형  
10분 정밀 진단  
제공

2026. 05. 25(월) 오후 2시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동 5층  
문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2515 | 0812 1960 308 | 카톡 ID: korasos

후원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